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  
나님의 십자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  
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5월 6일 (토) 제 163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성경” 좋아하지만 읽지는 않는다!

#### 라이프웨이, 미국인들의 성경읽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인들은 성경을 좋아한다. 그러나 제대로 읽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독교 리서치 그룹은 지난 4월, 약속이나 한 듯이 일괄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미국인들과 성경과의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을 내놓았다. 바나 리서치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2017 성경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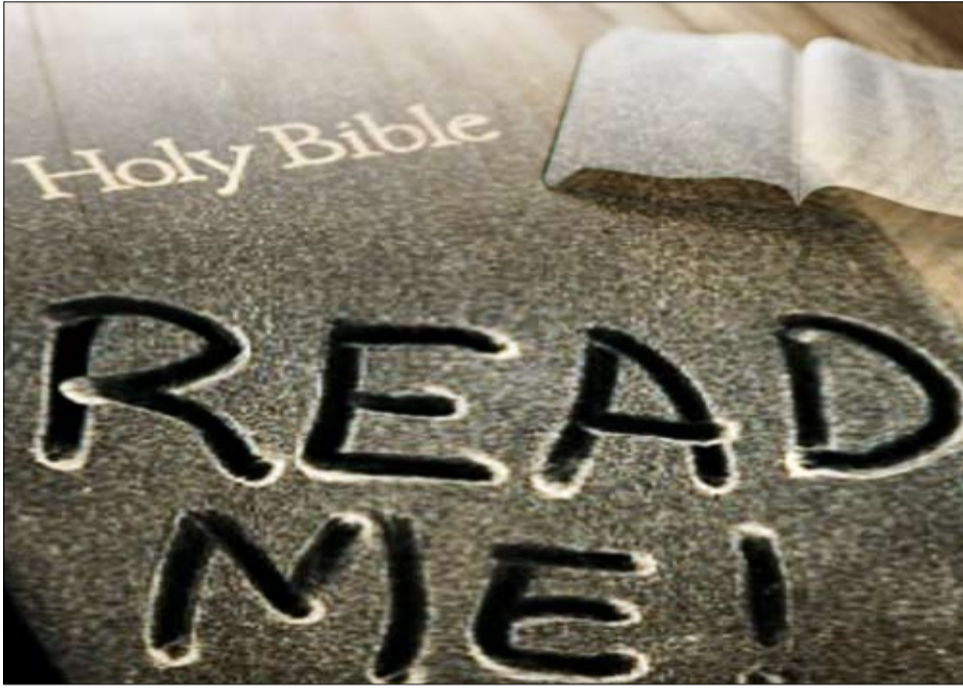
황'을 발표(State of the Bible 2017: Top Findings)했고, 이번에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미국인의 성경 읽기에 관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LifeWay Research: Americans Are Fond of the Bible, Don't Actually Read It).

먼저 미국인들은 성경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후, 거의 막장으로 가는듯한 미국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낙락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성경은 오늘을 위한 도덕적 교훈들로 채워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인 반수 이상이 성경을 '조금' 읽든가 아예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성경을 매일 읽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성경을 읽는 미국인은 1/4이 되지 않는다. 라이프웨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1/3은 아예 제 손으로 성경을 펴지 않는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타 맥코넬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접하는 때는 다른 누군가가 성경을 읽



미국인들은 성경을 신뢰하고 좋아하지만 정작 읽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54%가 수박 겉핥기식...못 읽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체계적으로 매일 조금씩...22%, 펼친 적 없어...35%

을 때다"라고 말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했으며, 성경에 대한 진밀도가 제각각임을 발견했다.

응답자 중 불과 9%만이 한 번 이상 읽었고, 11%는 성경 전체를 읽었고, 12%는 대부분을 읽었고, 15%는 절반도 못 읽었고,

30%는 이야기 혹은 몇 구절들만 읽었다고 응답했다. 13%는 몇 문장만 읽었고, 10%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결국 응답자의 53%가 성경을 수박 겉핥기 순으로 읽는 셈이다.

또한 미국인들은 성경을 읽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22%는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매일 조금씩 읽는다. 30%는 필요할 때 성경을 읽는 반면, 35%는 성경을 펼친 적이 없다. 그리고 19%는 좋아하는 부분을 다시 읽

고, 17%는 성경을 아무 데나 펼쳐서 무작위로 선택한 구절을 읽는다. 27%는 이웃이 권해준 부분을 찾아 읽고, 16%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구절을 찾는다.

항상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미국인들(49%)이 그 외의 기독교인들(16%)보다 더 많이 성경을 날마다 조금씩 읽는다. 개신교인(36%)이 가톨릭(17%)보다 더 많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

(3면으로 계속)

### ‘하나님 사랑’ 닮은 ‘어머니 사랑’

#### 2017 어머니주일... “아들, 사랑해”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달력을 펼쳐보면 어린이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이 연이어 나타난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날이지만 어버이날만큼 특별한 날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아들과 딸들의 어버이인 까닭이다.

따라서 교회력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저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바로 어머니란 이름으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가치를 기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 즉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같이 하는 날이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기념일답게 보내기 위해 많은 선물과 이벤트로 감동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이 야단스름함이 부모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언제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없이 포근한 이름, 어머니.

그러나 어느새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우면서 자식을 건사하기에 분주해져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어머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에게 그저 건강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으로 아니면 아버지 주일 케이션과 외식 한 번으로 “통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항상 먼저 걸려오는 어머니의 안부 전화도 뒷전으로 처지가 일상이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집에서 모든 식구가 나가 버려, 홀로 고독과 병환에 감옥살이(?) 하시는 어머니에게 이미 반백살이 지난 나이에도 일부러 재롱과 어리광을 부려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산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항상 한결같다.

한국 사회에서 잔잔한 감동을 전해 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바로 “아들, 사랑해!(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라는 글이다:

집에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셨다. 어머니: 민수야. 나..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 좀 가르쳐줄래?/민수: 그런 건 배워서 뭐하겠어요?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았나 보다.

사실 언제부턴가 아버지,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았다.

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드렸다. 민수: 자. 보세요. 편지 그림 클릭한 다음에..

어머니: 클릭이 뭐니? 어머니에게 한참을 가르쳐 드렸지만 도무지 알아들길 못하셨다. 민수: 아, 진짜...저 시간 없어요... 잘 좀 해봐요!! 어머니:....

난 어머니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또 화를 내고 말았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론  
김종운 목사

**5면**

아는 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6면**

‘신앙뿌리를 찾는  
북한 순례의 길’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세미나

www.rptsaa.org

주제: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목회 페러다임"

일시: 5월22일(월) - 23일(화), 오전9시30분 - 오후4시

장소: 심령이가난한교회 (이종태 목사 시무)  
43-24 215 Street, Bayside, NY 11362  
(917) 386-8852

강사: 황의영 목사 -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총재

\* 참가비: \$30 (식사, 교재비 포함)

\* 선착순 40명

\* 등록마감: 5월 13일, 토요일



강사: 황의영 목사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회장 정기태 목사 부회장 이종태 목사 서기 최화숙 전도사





# 시론

## 2017년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김동연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해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 뭔가 허전하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던 기도, 성금요일 금식, 부활주일 새벽연합예배, 부활주일예배,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하였는데 이제 마치 큰 시험이 끝난 학생처럼 느슨하고 긴장감도 풀린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며 기도하였으나 여전히 힘든 우리들의 현실에 다시 서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힘없이 삶의 현장에 서 있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비록 환경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환경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부활주일을 지나며 성도들과 나는 말씀 중에서 필자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된 세 사람에게 대하여 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분은 한국 교회 초기 목회자 중에 한분인 채필근 목사님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 있던 채 목사님을 특별하게 위로하셨음을 본다. 채 목사님은 네 아이들을 잃었다고 한다(장남 9살 삼남 22살 사남 23살 육남 4살). 한 아들도 힘든데 넷이나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 특별히 맏아들이 9살에 죽었을 때는 출타중이어서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다고 한다. 한 달 후 집에 돌아와 아들이 죽어 장사한 것을 알고 너무 슬퍼했는데 그날 밤 집 뒷산에 올라가 보니 휘장이 둘러쳐진 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음새 부분을 찾아서 들었고 보니 죽은 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꽃관을 쓰고 자기를 내려다보며 "아버지 나는 죽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참 재미있어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목사님도 너무 좋아서 함께 웃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었는데 그날 이후 죽은 아들로 인한 슬픔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서 어린 맏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 슬퍼하던 채 목사님을 위로하신 것이다.

두 번째 분은 1970년대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키파셈판디라는 목사님이다. 당시 독재자 이디 아민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죽였는데 어느 부활주일에 그 목사님을 죽이라고 암살자들을 보냈다고 한다. 죽이겠다고 총을 들이던 그들에게 빙그레 웃으며 잠간 기도한 후에 죽이라 했고 마지막 부탁이니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 목사님은 조용히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를 그대로 하고 아멘으로 기도를 끝냈는데 암살자들이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하고 그냥 갔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그날이 부활을 증거 하는 부활주일 아침이므로 당장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마지막은 샘이라는 장애아였다. 몸이 뒤틀리고 정신장애가 있는 그는 12살이지만 2학년 반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도리스 담임선생님은 자주 몸을 뒤틀고 소리를 질러서 수업을 방해하므로 부모에게 특수학교로 보내기를 권했지만 특수학교가 너무 멀고 샘이 지금 학교와 반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므로 큰 상처를 받을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사랑으로 보살피게 되었다고 한다. 부활주일을 앞둔 어느 해 봄날 아이들에게 빈 플라스틱 달걀을 나누어주며 내일까지 그 속에 생명을 담아오라고 했는데 다음날 18명은 벌레, 나무, 물 등을 다 담아왔지만 샘은 빈 채로 가져왔다고 한다. 웃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그 이유를 묻자 샘은 말을 더듬으며 "선생님이 예수님의 무덤은 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네 선생님,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를 무덤 속에서 살려냈어요." 석 달 후 샘은 죽어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누운 샘의 관 위에 놓인 19개의 플라스틱 달걀을 보며 궁극한 표정들을 지었다고 한다.

필자의 교회에 여든 중반 된 박 장로님이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신다.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나와 홈 호스피스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얼마 못사실지 모른다. 심방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마음이 편해요,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었어요,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 속에 문들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이다" 하신 예수님이 샘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장로님과 함께 하심을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33년경에도, 1900년대에도, 1970경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필자의 목회지인 백스카운티에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믿는 분들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pwkim529@gmail.com

# 러시아까지 물들이는 지하드 광기

## 뉴스위크, 시리아내전 개입 후 중앙아시아 이슬람분리주의자들 테러 감행 실상 보도

지난 4월 3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지하드 폭발사건이 발생했다. 그 폭발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러시아에서 활동이 금지된 과격 이슬람 단체 소속으로 키르기스스탄 출신 러시아 국적자인 아르바르존 잘릴로프르 밝혀졌다. 소식통은 "폭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잔해들을 조사한 결과 자폭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최종 결론은 시신에 대한 유전자 감식 뒤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막강한 통치력을 기반으로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스시 요리사인 잘릴로프는 2011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북부 16층짜리 아파트에 거주해왔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돼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러시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폭탄이 터진 지하철 안에서 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이 남성은 폭발물을 배낭에 넣어 지하철로 갖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거점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이 도시를 찾은 시기를 노려 사제 폭발물을 열차 내부에서 터뜨린 것이어서 배후가 주목된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 제2의 도시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은 영국 런던 의사당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

러워 정권은 거의 8년 만에 발생한 테러 상황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바로 시리아 내전 개입이후, 옛 소련연방에 속했던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국가 출신 극단주의자들의 IS 가입과 활동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위크는 러시아에서까지 지하드가 감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해준다(Timeline of terror: From Beslan school siege to Sinai, Russia has always been a terrorist target: St Petersburg is the latest in a string of attacks against Russia at home and abroad.).



## IS, 구소련 붕괴후 불안정 체제와 사회 불만세력 득세 틈타 중앙아시아서 모병해와 러시아의 이슬람주의 테러경험은 IS 공식출범 2014년보다 20년전 체첸반군 때부터

러가 일어난 지 12일 만에 일어나 유럽 내부의 테러 우려도 커진다.

이번 폭탄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는 곧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러시아가 6년째 내전을 치르는 시리아에 개입한 것과 관련된 테러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 전문가인 폴 토크슨은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 이후 무슬림 민간인 사상자가 늘면서 지하디스트들이 러시아를 최후의 표적으로 꼽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용의자인 잘릴로프가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몸담았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옛 소련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동맹국이지만 국민의 75% 이상이 무슬림이다. IS는 옛 소련 붕괴 이후 불안정한 체제와 사회 불만 세력의 득세를 틈타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모병해왔다. 다수의 민간인이 밀집한 대중공간을 노린 소프트테러라는 점도 IS의 범행과 닮았다. 잘릴로프는 키르기스스탄 제2의 도시이자 우즈베키스탄 민족이 모여 사는 오시 출신으로, 합법적 절차로 러시아 국적을 획득했다.

아직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슬람주의 단체와 관련 있다면 거의 8년 만에 러

시아에서 감행된 최악의 테러 공격이다.

8년 전인 200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이를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폭발물이 터져 27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 당시 이슬람 분리주의 테러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무슬림 분리 지역인 잉구셰티야 공화국의 테러리스트 12명이 그 공격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잉구셰티야는 러시아의 지배에 강하게 저항한다.

러시아 당국이 이번 테러의 배후로 IS를 유력하게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시리아 내전에 참여한 러시아와 옛 소련군 출신 테러리스트들이 러시아로 돌아와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8월엔 북면 쓴 IS 대원이 유

튜브 등에 동영상 올리고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편을 돕기 위해 개입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에서 지하드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달 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충성을 서약한 두 남자가 모스크바 외곽의 교통 신호등 앞에서 경찰 2명을 살해하려 했다. 몇 달 뒤인 지난해 12월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터키 앙카라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전시회 개막식에 축하하던 중 터키 경찰관이 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 편집국장: 유원정
<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gmail.com	<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p><b>학위과정 Degree Programs</b></p> <p><b>ESL Program</b></p> <p><b>Bachelor Degree Programs</b>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amp; Flight Aviation Management &amp;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b>Master Degree Programs</b>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b>Doctoral Degree Programs</b>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b>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li> <li>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li> <li>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li> </ol>	<p><b>2017년 항공학과 신설</b></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b>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b>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a href="mailto:usa@midwest.edu">usa@midwest.edu</a></p>
<p><b>Main Campus</b>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a href="mailto:usa@midwest.edu">usa@midwest.edu</a></p>	<p><b>Washington DC Campus</b>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a href="mailto:wdc@midwest.edu">wdc@midwest.edu</a></p>



# “성경” 좋아하지만 읽지는 않는다!

(1면에서 계속)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미국인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교회에 가는 이들 중 39%가 날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고, 한 달에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들의 경우 13%만 성경을 매일 읽는다.

이처럼 미국 기독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호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경을 자주 읽는 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로는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27%) △살이 너무 바빠서(27%) △시간이 없어서(15%) △읽을 만큼 읽어서(13%) △성경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10%) △자신의 삶과 별 관계가 없어서(9%) △책의 두께가 너무 위협적이어서(7%) 등등이 언급됐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좋아하지만, 성경 읽기에 대해 절박한 마음은 없는 것 같다”는 점이, 이번 설문 조사를 진두지휘한 스타 맥코넬의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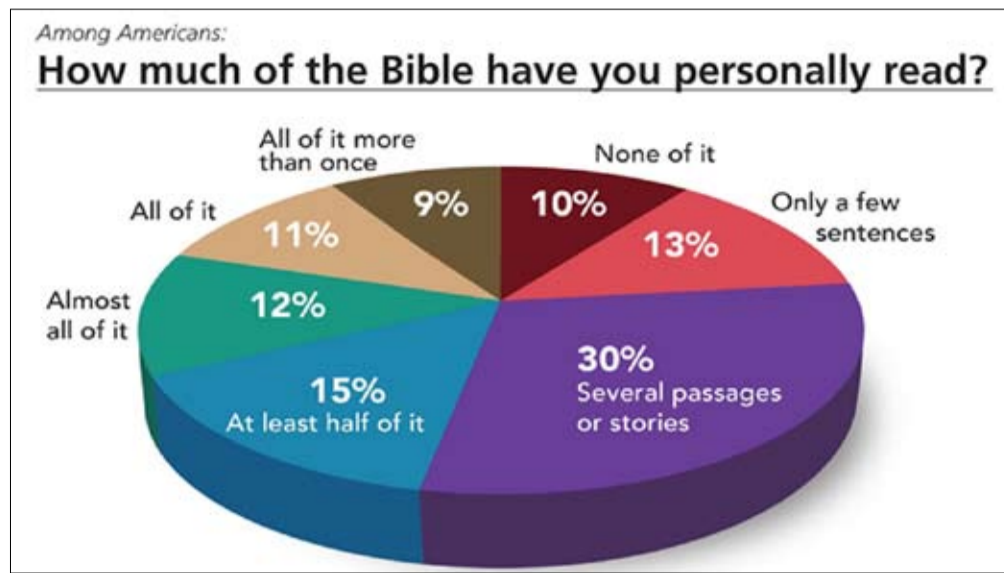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면 계획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맥코넬은 말했다. 미국인들은 성경 읽기를 무슨 운동쯤으로 여긴다면서, 맥코넬은 성경의 중요성이나 유

용성을 잘 알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경 읽기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 맥코넬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고 묘사한다. 날마다 조금씩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이 도움을 주고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접한 이들은 성경에 긍정적이기는 하나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읽지 않고 있기에 성장이나 변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전개시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를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하나님 사랑’ 닮은 ‘어머니 사랑’

(1면에서 계속)

어머니: 좋게 설명하면 되지... 왜 콘소리 지르고 그래? 민수: 설명을 해줘도 해줘도... 모르니까 그렇지요. 어머니는 또 틀리시고... 가르쳐 드려도, 가르쳐 드려도 계속 틀리시는 우리 어머니... 민수: 어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이런 거 배운다고 해서 사람 귀찮게 해요?

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느끼지 못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후회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는지... 민수: 이제 저 자러 갈게요. 어머니 혼자 알아서 해 보세요. 난 핸드폰만 붙잡고 가만히 계시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내 방으로 왔고 바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말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전에 나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숫자를 가르쳐주신 어머니... 인사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에게 왜 나는 문자메시지 하나 가르쳐 주지 못 했을까? 그 때 내 핸드폰은 울렸다. 그리고 ‘아들, 사랑해’ 못한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였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할 때

다 아쉽고 부끄럽기만 하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심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나를 떠난다 해도 끝까지 지켜주실 단 한 사람 어머니는 조용하게 기다리고만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공경은 존경하면서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다시 말해서,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이 우러러보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자식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식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

는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기에, 우러러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축복하는 생활이 효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함으로써(엢 6:1-3), 못한 자식을 항상 누구보다도 더 애뜻하게 아끼시는 그분들에게 보답해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더 나은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2면에서 계속)

당시 범인은 카를로프 대사가 쓰러진 후 “신은 위대하다. 시리아 알레포를 잊지 말라”라고 소리쳤다. 알레포는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공동으로 반군 거점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한 시리아의 고도다.


이처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래 IS 등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의 표적이 됐다. 2015년 10월에도 러시아 코갈라마비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를 출발해 샤프페르부르크로 돌아가던 중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등 224명이 전원 사

망했다. IS 이집트 지부 시나이(시나 월라야트)가 배후를 주장했다.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며 공습에 나선지 한 달만의 일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슬람주의 테러 경험은 IS가 공식 출범한 2014년 6월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첸 분리주의자들은 수세기 동안 러시아와 싸웠다. 1994년엔 체첸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됐다. 2년 뒤 러시아는 체첸에서 철수했지만 1999년 제2차 전쟁으로 체첸을 다시 점령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 동안 체첸과 다게스탄, 잉구

셰티아 등의 무슬림 공화국의 무장 단체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저항 운동을 계속했다.

체첸 반군은 2004년 러시아연방의 북오세티야 공화국 도시 베슬란의 한 학교에 학생과 주민 등 1200여 명이 인질로 잡혔고(3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였다), 2010년엔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두 곳에서 자폭테러를 일으켰다(40여 명 사망). 지금은 그들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이슬람주의 운동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IS 산하에 독자적인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원로칼럼

### 대외활동 이야기(중)

6)정도(正道)를 걷는다  
교회목회, 연합사업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모두 정도를 따르고 걷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고 신념이다. 정도를 걷는 사람에겐 야합이나 타협이 근접하지 못한다. 최고 최상의 정도는 성경이다. 정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다가서는 성경구절이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통합교단 부총회장 선거는 임후보자들의 조건을 밝히는 5분 스피치로 시작된다. 필자는 소견발표를 위해 강단에 오를 때 성경을 가지고 등단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선거 역시 소견발표를 해야 한다. 필자는 역시 성경을 들고 등단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따르고 지지해야 될 정도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세상 정치는 권모술수와 허위남조가 춤추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안된다. 교단과 교계정치를 세속적 방법으로 풀아가는 정상배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좋다.

####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역들

1)통합교단 총회장으로 섬기다  
필자 나이 55세 되던 해 부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당시 수도권에서는 최연소 부총회장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필하는 위치여서 1년 동안은 학습자의 자세로 총회를 섬겼다. 총회장으로 취임하고 제1년 동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생산성 부분과 계약을 체결하고 총회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 일이다. 전문기구에 외주를 주고 총회본부와 각 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은 총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른 기억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개최된 세계개혁교회 대표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의미가 깊었지만 더 큰 의미는 코리야의 날을 정하고 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였던 고 강영섭 위원장과 함께 등단해 강연을 하고 회중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한 일이다.


그리고 부총회장 재임 기간 총회 주체 해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 선정과 선정된 주제해설집을 교단 최초로 만들어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전도 부장 재임 기간에는 만사운동 지침을 마련, 총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결의하기도 했다. 전도학교를 설립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가 하면 훈련원을 만들어 만사운동(1만교회 4백만 신도운동)을 추진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섬김들이었다.

2)음악과 함께 해외를 돌다  
1997년 총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였다. 여러 가지 기념행사 중 기념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창작 칸타타를 준비했다. 필자가 시(가사)를 쓰고 작곡은 예술종합학교 교장이었던 이영조 교수가 맡아 “베들레헨에서 갈보리까지”라는 곡을 완성하였다. 총신교회 찬양대 600여 명과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부르고 솔리스트로는 이현, 김향란, 유미숙, 장유상, 김남두 교수들이 참여했다. 연주 장소는 예술의전당이었다.

한국 음악계는 이 행사를 한국교회 음악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고 반겼고 한국교회 합창음악을 승격시킨 쾌거라고 여겼다. 개교회 음악행사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것도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7년 50주년을 기념하는 제 2회 창작 칸타타 연주를 같은 장소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작사는 필자가 맡고 작곡은 김정수 교수가 맡았다. 10년 세월이 흐른 탓도 있지만 두 번째 연주는 더 완숙한 경지에 달했고, 개교회가 예술의전당에 두 번째 막을 올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iamcspark@hanmail.net



## 행복이 있는

# 담임목사 청빙

-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3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 영어설교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 거주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 중요경력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목회철학과 비전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영어 설교동영상 각각1편(CD, DVD 혹은 인터넷 링크)
  - 가족사진
- 제출 방법: 이메일 및 우편**
  - Email: chkpc.cbc@gmail.com
  - Address: Cheltenham Presbyterian Church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7507 Tookany Creek Pkwy,  
Cheltenham, PA 19012
- 제출 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행복이 있는 첼튼햄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www.chkpc.org

#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아남님 중심, 말씀 중심, 교의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써 온 영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 목회철학과 비전
-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 목사 2명 이상 추천서

####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oc1newpastor@gmail.com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 서류제출마감

2017년 5월 17일 소인까지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oc1newpastor@gmail.com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무릎으로 하는 애국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조국이 있다. 백성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거룩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원으로서 망해 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의 내일을 탄식하며 기도하셨다. 기도는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큰 제자인 사도 바울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는 6.25사변이후를 처참한 민족적인 비극을 겪었다. 6.25전쟁이 남긴 그 인류사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은 해마다 평균 320만 명이 방문한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과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의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 해, 공군의 모습을 보며 아주 깊은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여기에 새겨진 문구이다.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는 글이다. 그런데 그 아래에 은색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교훈이다. 두 동강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국가로 민족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가? 미군 사망자만 5만4,246명이고, 한국군과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8,833명, 부상자는 미군만 10만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4,453명, 미군 실종자만 8,177명,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들을 잃었고,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잃었고 위계중장은 아들과 함께 잡혔다가 전사했고 24사단 단소장은 전쟁포로가 되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렀기에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있다. 한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안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려가며 기도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치적인 상황이나 남북관련 국제적인 안보상황이나 불안하기 그지없다. 이런 때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지만 애국하는 크리스천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기 '자유'와 '안전'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자유롭기는 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유가 오래 갈 수 없고 안전한데 자유롭지 못하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후손 세대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고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선지자들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민족이 되면 그 자체로 민족의 번영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민족의 위기라고 보

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자기 민족을 품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38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2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셨다. 또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AD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다.

마태복음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41-42절 말씀이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져도다."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은 4개 군단 약 8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무너뜨렸고,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십만 명은 노예로 로마에 끌려가는 비극이 시작됐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신 것이다. 이때 뜻있는 유대인 애국자들 어린이아이들까지 약 967명이 해발 450m의 천연요새인 맛사다로 도피하여 로마인들과 최후의 항전을 계속했다. 그러다 3년 뒤 실바 장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자 그들은 로마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자고 결의한

다.

이때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살 벤 아일은 유명한 연설을 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맛사다 언덕에 울랐던 전원이 장렬한 자결로 최후를 맞이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애국자들이 장교로 임관할 때는 이 언덕에 올라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맛사다의 비극이 없기를!"하고 외치며 충성을 맹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맛사다 못지않은 비극의 현상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한 군인 사상자가 모두 약 300만 명, 민간인 사상자도 모두 약 300만명, 합계 약 600만명이 죽고 다쳤으며, 전쟁미망인만 약 20만명에 전쟁아가 약 10만명, 파괴된 가옥이 60만채, 북한 월남민이 약 300만명, 이산가족이 약 1000만 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산업 생산력의 약 80 퍼센트가 파괴되었다. 그리고 공산군 점령지에서 그 어떤 계층보다도 핍박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이었다. 실로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비극적 전쟁이 바로 한반도의 6.25전쟁이었다. 이런 전쟁의 비극을 경험한 애국적인 크리스천이라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는 전쟁의 불안감이 짙게 감돌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의 회담이 끝나더니 남북간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를 실시할 경우 미국은 선제공격을 하겠다며 핵추진 항공모함들을 한반도 해상에 진입시키고 중국은 한반도의 핵전쟁을 예상해 국경지대 15만 명의 군대를 대기시키고 일본 아베수상은 남한의 피난민들이 몰려오면 다 받지 않고 선별적으로 받게하고 떠드는가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운영을 중단하는가 하면 전쟁위기를 증폭시키는 허들감을 떨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만 믿고 핵무장도 하지 않은 채 요즘에는 이 위급한 상황인데 대통령선거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더욱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삼상 17:47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애국하는 크리스천은 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크리스천의 가슴에는 조국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이다. 무릎으로 하는 애국이 절실 할 때이다. 무릎으로 하는 애국이 절실 할 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 푸/른/초/장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사람은 누구나 불가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불가능의 고통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는 것 같다. 신자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불신자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힌다. 목사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교우들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힌다. 백성들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권력자도 불가능의 부딪힌다. 부자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히고 가난한 자도 불가능의 벽에 부딪힌다.

불가능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반응을 가지게 된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체념하거나 나름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한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앙적인 길을 찾기도 한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삼상 1:7).

2. 불가능의 벽을 서원기도로 극복하는 여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 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사고 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란 전도 어깨띠를 두르시고 이 거리 저 거리 이 식당 저 식당으로 목목히 전도하러 다니시던 고 윤철주 목사님이 계셨다. 대구에서 출중하게 목회, 교육 선교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신 주님의 신실한 종이시다. 윤 목사님은 언제나 전에 목회하시던 교회 장로님 간증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일평생 술을 안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기로" 죽어가는 어머니와 약속을 하고 서원하여 술을 안마시고 담배를 안 피운다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도 귀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욱 힘이 있고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3. 불가능을 서원 기도로 극복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일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서원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이나 성경에는 서원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동으로 새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심본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0-22).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고 야곱은 서원으로 기도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 야곱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창 33:19).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님은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서원을 있는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을 더욱 축복하신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생육하며 번성하라...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창35:10-11).

결론으로 저의 작은 간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제가 섬기는 미주양곡교회에서 우연한 기회를 얻어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제이 양곡교회를 현지에 건축 하고 나서 제가 심각한 기도제목에 부처하였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세워드리다고 서원기도를 드려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는 하나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리라 믿어서 그런 제목을 서원기도 조건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지어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성전건축의 서원이행을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어오던 중에 제삼양곡교회 건축 헌당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가서 습관을 따라 호텔에서 성경을 펼쳤더니 놀랍게도 신명기 23:21의 성경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 깜작 놀랐다. 이것은 서원이행을 더디 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을 인하여 급번 오월에 네 번째 캄보디아 양곡교회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씀은 서원기도를 드린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로 하여금 캄보디아 교회건축의 서원을 이행하게 만드신 말씀이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 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신 23:21).

#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서원 기도 (사무엘상 1장 10-11절)

1. 불가능의 벽에 서게 된 여인 한나

한나는 좋은 남편 엘가나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신앙적 여인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나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여 무자한 여인이 되었다. 엘가나 가정에서는 아기를 얻지 못하는 한나로 인하여 후손을 얻기 위해 브닌나란 여인을 첩으로 얻어 아기를 갖게 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한나는 아기를 얻지 못하고 브닌나는 아기를 갖게 되자 한나를 가깝게 여기고 격분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삼상1:6).

한나는 아기를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 여인으로서의 행복과 꿈이 산산조각이 난 불행한 여인이 되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께의 집에 올라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므로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나를 기억하시 주의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여종에게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1:11).

한나는 일반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함으로 기도드렸고 결국은 아들 사무엘을 얻어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대한 아들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고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다시 세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더 얻어 육남매를 두는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다.

아들을 두지 못하여 당하는 서러움과 고통은 이제 끝이 났고 적수 브닌나로 인하여 격분하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없게 된 것이다.

한나는 서원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서원기도를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미국 엘에이에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셨다.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

한때 동양 최대 석조건물 성전에 대한 건축 일화인데, 크게 성전 건축에 기여하신 정 장로님이란 분이 죽을병에 걸려서 서원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면 예배당을 건축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서원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 장로님을 살려 주셨고 정 장로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양 최대의 석조건물 예배당을 봉헌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서원기도 응답의 간증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도 위대한 힘이 발휘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켄터키 주를 방문하였을 때 대령 한분이 얼음이 든 위스키를 권유하니 정중히 사양하고 담배를 권유해도 사양하면서 왜 자기가 술을 안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 지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링컨 아홉 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임종 전에 어머니가 "나는 회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서원을 망각하거나 알고도 서원 이행을 미루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중에 야곱의 서원 기도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든 도망자 시간에 베델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정 장로님을 살려 주셨고 정 장로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동양 최대의 석조건물 예배당을 봉헌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서원기도 응답의 간증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것도 위대한 힘이 발휘 된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켄터키 주를 방문하였을 때 대령 한분이 얼음이 든 위스키를 권유하니 정중히 사양하고 담배를 권유해도 사양하면서 왜 자기가 술을 안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는 지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링컨 아홉 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임종 전에 어머니가 "나는 회복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세겜 성읍에 머무르면서 오래전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기도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세겜 성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세겜 성에서 낭패를 당하여 딸 다나가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하여 아들과 세겜 성 남자와 더불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앞두고 되자 야곱은 두려웠고 답답하게 되었다. 서원이행을 잊고 지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하신지라"(창35:1).

야곱은 뒤늦은 서원이행을 위해 다시 베델로 올라갔고 서원을 이행하려 가는 야곱의 그 길을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셨다. 야곱은 뒤늦게 서원을 이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이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

를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서원을 있는 사람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을 더욱 축복하신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생육하며 번성하라...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창35:10-11).

결론으로 저의 작은 간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제가 섬기는 미주양곡교회에서 우연한 기회를 얻어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제이 양곡교회를 현지에 건축 하고 나서 제가 심각한 기도제목에 부처하였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세워드리다고 서원기도를 드려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저는 하나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리라 믿어서 그런 제목을 서원기도 조건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캄보디아에 양곡교회를 지어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기도했다. 결국 하나님은 저의 간절한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성전건축의 서원이행을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어오던 중에 제삼양곡교회 건축 헌당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가서 습관을 따라 호텔에서 성경을 펼쳤더니 놀랍게도 신명기 23:21의 성경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다. 깜작 놀랐다. 이것은 서원이행을 더디 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을 인하여 급번 오월에 네 번째 캄보디아 양곡교회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 말씀은 서원기도를 드린 모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로 하여금 캄보디아 교회건축의 서원을 이행하게 만드신 말씀이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 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니라"(신 23:21).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마케도니아의 보스니아인(BOSNIAN)



광대 한 민족적 다양성을 가진 구 유고슬라비아는 아마도 유럽의 가장 폭발적인 분쟁이 있는 지역일 것이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동남부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다. 1946년부터 1991년까지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공화국 중 가장 남쪽에 있었다. 1991년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공화국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마케도니아도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마케도니아를 승인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는 공식적으로 "마케도니아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불가리아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일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마케도니아 인구의 20%가 알바니아인의 후손이므로 언젠가는 알바니아도 또한 자기들의 땅을 요구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마케도니아의 보스니아인은 인구 4만이 못되는 소수민족이다. 마케도니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은 모두 언어가 비슷한 유고슬라비아인(남슬라브인)이다. 종교가 이들의 구별된 요소가 되고 있

다. 삶의 모습 마케도니아는 발칸 반도에서 오스만투르크(오토만)제국에 정복된 첫 번째 지역이고, 발칸 전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유를 얻은 나라다. 마케도니아에 영향을 준 터키의 영향력은 가는 연필 같은 탐모양의 오토만 스타일의 성전, 격자 창문의 나무집, 전문품점이 함께 모여 있는 시장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스만투르크의 통치기 초에 많은 보스니아 기독교인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켰다. 이러한 개종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슬림은 직업을 빨리 얻을 수 있고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스니아인은 그 도시의 전문직과 공무원의 직위를 빠르게 장악하게 됐다. 시골의 보스니아인은 곡류와 가축생산(주로 양)에 그대로 종

사했다. 전통적으로 보스니아 무슬림들은 남자가 지배하는 "자드루가"(zadruga)라 하는 농촌의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다. 모든 사람은 집단 경제의 부에 이바지하며, 보스니아인의 결혼은 동족 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시골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다. "외부인"과 결혼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다른 종족의 무슬림과 하게 된다. 일부 다처제는 국법으로 금지돼 있다. 보스니아인들이 독립을 선언한 후 1992년, 세르비아인들과 크로아티아인들 사이에 잔인한 내전이 시작됐다. 보스니아의 공장, 집, 학교, 이슬람 사원(mosque)의 70%가 파괴됐으며, 약 10만명의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죽거나 실종됐다고 보고됐다. 1993년, 6만 이상의 무슬림들은 난민촌에 모여 살았

다. 서구쪽에서는 보스니아 무슬림들이 내전의 주요한 희생자로서 보여지며, 피난민들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 산재해 있다. 신앙 거의 모든 보스니아인은 무슬림이다. 이슬람교는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며, 이슬람에는 기둥이 되고 있는 5가지 교리를 기초로 한 행위의 종교이다. (1)무슬림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한다. (2)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 (3)넉넉하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4)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람잔)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5)일생 동안 적어도 한번은 메카로의 순례여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1946년 유고슬라비아에 공산정부가 세워진 후에도, 당국

은 보스니아 무슬림들의 종교적 의식을 묵인했다. 또한 필수적인 국가교육정책을 따르는 동안에도 이슬람학교는 계속 개방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오늘날 마케도니아 정부는 이슬람을 알바니아 민족주의를 불발게 하는 도구로 간주해 무슬림을 관대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보스니아인은 유럽에서 복음화가 가장 늦게 된 나라 중 하나다. 선교단체들이 마케도니아의 보스니아인들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스니아인은 복음 메시지를 강하게 거부하며 거의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기도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열쇠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레즈비언주교 선출은 위법" UMC사법위 판결

미국연합감리교회(UMC) 총회의 사법위원회가 서부 지부 총회에서 지난해 7월 레즈비언인 캐런 올리베토(59) 목사를 주교로 선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교단 내에서 불거져온 동성애자의 주교 선출 논란이 이번 판결로 봉합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UMC 뉴스 서비스(UMNS)에 따르면 UMC 최고 재판국인 총회 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서부지부(Western Jurisdiction)가 지난해 올리베토 목사를 주교로 선출한 것에 대해 교단법을 어긴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위원회는 "지부나 총회에 소속된 주교 위원회에서 동성애자 주교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특정 개인이 오래 지속돼온 교단법을 어기거나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올리베토 목사의 주교 지위를 당장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UMC는 교단법상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올리베토 목사가 주교로 선출되면서 논란이 극으로 치달았다. 서부 지부는 지난해 7월 15일 스코츠데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 담임목사이자 레즈비언인 올리베토 목사를 서부 지부 주교로 선출했다. 올리베토 목사는 같은 여성인 캘리포니아 네바다교회 집사 로빈 리테나우어씨와 결혼한 레즈비언이다. UMC 역사상 레즈비언이 주교가 된 것은 올리베토 목사가 처음이다. 그는 17번째 주교로 선출된 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 전진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UMC 주교위원회 브루스 R. 오위 주교는 올리베토 목사가 주교로 선출되자 "이번 선거 결과는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2020년 총회에 앞서 오는 2019년 2월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동성결혼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슬람국가 인도네시아에 150m 예수상 건립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대의 예수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예수상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사진·Christ the Redeemer) 형태를 따를 것으로 전해진다. 예수상 건립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상은 파푸아주 주도 자야푸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세워질 예정이다. 상의 높이는 약 50m, 상을 바치는 하단은 대략 100m다.



브라질 예수상의 높이가 30m인 점을 감안하면 배 가까이 큰 규모다. 파푸아주 관계자는 "예수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예수상의 꼭대기에서 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푸아주 당국은 주 의회의 건축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건립비용은 2,260만~3,760만 달러다. 설립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이다. 현재까지는 2010년 세워진 폴란드의 예수상(Christ the King)이 36m로 가장 높다. 근래 화제가 된 예수상은 지난해 초 나이지리아에 세워진 것(Jesus de Greatest)이다. 극단 이슬람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기승으로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건립됐다. 높이는 9m다. 브라질 예수상은 포르투갈로부터 브라질의 독립을 기념해 세워졌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5800만 명 중 무슬림이 87%를 차지하는 반면, 기독교인은 6%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최초의 크리스천 주지사 바수키 차야 푸르나마(일명 아후)가 최근 선거에서 지면서 낙심한 분위기라고 한다.

콜롬비아 산사태 마을에 뜬 예수구름

산사태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콜롬비아의 산악 마을에 예수 형상을 한 거대하고 밝은 구름이 발생해 실의에 빠진 현지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를 선사했다.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현상은 지난 22일 콜롬비아 중서부 칼다스주의 주도인 마니살레스 지역에서 일어났다. 마니살레스에서는 한 달 동안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7명 이상이 실종됐다.

구름은 산사태가 발생했던 산칸치오(Sancancio) 산 위에서 포착됐다. 현지 주민들은 구름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거나 "하늘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외쳤다.

2017년 미국 유망직업 순위 발표

올해 미국 최고의 유망직업은 통계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200대 직업을 매년 조사·평가하는 취업전문 사이트 '커리어캐스트'는 28일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수치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통계학과 수학 관련 전문가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리어캐스트'는 미국 노동청 통계 등 다양한

Table with 2 columns: 순위 (Rank) and 직업 (Job). Top jobs include 통계전문가 (Statistician), 의료서비스관리직 (Healthcare management), 공정보석 전문가 (Public affairs expert), 정보보안 분석가 (Information security analyst), 대학교수 (College professor), 수학자 (Mathematician),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Software engineer), 직업치료사 (Vocational therapist), 언어치료사 (Speech therapist).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별 수입과 업무환경, 스트레스, 미래 전망 등의 분야로 나눠 트렌드를 평가하고 종합해 순위를 매겼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STEM'(과학·공학·기술·수학의 영문 머리글자) 분야와 보건 의료 부문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직업군이었다.

보고서가 꼽은 최고의 직업은 통계 전문가였고 의료서비스 관리직이 뒤를 이었다. 대학교수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의 직업은 최상위권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높고 미래 전망에 변수가 많아 상위권 순위에서 다소 밀렸다.

반면 최악의 직업으로는 신문기자(200위)와 방송기자(199위)가 꼽혔다. 보고서는 훈련된 기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노동 강도가 높고 마감의 압박과 사회적 압력 등으로 관련 산업의 미래가 어둡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 화산 터질 수도"

북한이 대규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활화산인 백두산에서 분출 재앙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연구소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수석 방위 연구원 브루스 베넷이 "중국과 북한 사람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분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넷은 "더 큰 규모의 핵폭발이 분출을 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수년 동안 김정일이 화산 분출을 야기할까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는 백두산과 불과 115~130km 떨어져 있다.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세계 화산 활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백두산으로부터 100km 내에 약 16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백두산은 폐쇄적인 북한 탓에 접근이 쉽지 않아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2000년대 들어 화산 활동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dvertisement for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WC) 2017. It features the text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다' (To receive blessing, we must give blessing) and lists speakers for a June 6-7 event in LA and Chicago. Logos for PWC, Mission Partners, and Food for the Hungry are included.



예배

신앙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특권은 다름이 아닌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배의 핵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나누는 영적 교제에 있다. 죄로 인하여 닫혀졌던 그 길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으로 새롭게 열렸다. 지상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모인 자들 중에는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고 누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제정된 형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는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사이의 유일한 연결 고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있었다면, 예배의 형식이였다. 10세기라는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굳어진 중세 교회는 자신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미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루터는 중세 교회의 미사를 몸소 경험하였다. 우리는 그가 종교개혁을 시도하기 전 그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사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남의 이야기를 들은 후 또는 성경을 묵상한 결과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피력한 것이다.

변화되는 예배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기로부터 약 5세기가 지난 현재, 우리는 로마가톨릭교회 미사와 개신교 교회의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배의 순서는 물론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구분점이 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루터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신학교에서는 교수로 교회에서는 설교자의 사역에 충실히 임하였다. 한 도시에 전통적인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공존하게 된 것이다. 주일이 되면 두 교회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출석하였다. 개혁이

확장되면서 각 도시마다 더 많은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현상은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적 마인드를 지닌 성도들이 교회 건물이 새롭게 지어질 때 구별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일이 생겨났다. 과연 로마교회 성당의 핵심인 성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

다. (1)교회에서 성상이 현존하는 것은 심계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2)조각이나 그림은 악마적이고 위협적이다. (3)우상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이 부여한 적합한 일이다. 그는 중세 교회가 하나님과 예배자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확신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의 일반

뜻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성상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진정한 문제는 성상을 숭배하는 신자들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두고 불쾌해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개신교 예배에 관하여 성상 파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구출된 예배

루터는 초기부터 중세 가톨릭교회의 미사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개혁 출발 3년 후인 1520년에 작성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이 이미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

를 드리는 자들이 마치 자신이 또 다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십자가 보혈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만일 미사가 하나의 약속이라면 미사에 접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어떤 행위나 능력이나 공적으로가 아니고 신앙 만에 의해서 일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받아드리는 인간의 신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시작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신앙일 것이다”(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p.172).

만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루터에게 질문한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깨달라고 조언할 것이다. 나의 기준에 의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바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주신 귀한 선물을 확인받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루터는 1523년에 “미사 형식서”를 출판하였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중세 교회의 미사에서 중시하는 모든 외적인 화려함이나 미신적인 의식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목회자였다. 개혁정신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새로운 신학에 근거한 예배에 서서히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을 시도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온 회중이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것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구상하였다. 예배자가 반드시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거부하여야 한다는 사실 이외에 예배 시간에 회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그가 도입한 회중찬송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예배의 개혁이 포함되었다. 그 중심에는 예배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적극적인 반응이란 가르침이 있다.

covenantcho@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8)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신앙인 특권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적극적 반응 로마교회 성상파괴에 대해 루터는 먼저 성도들 마음의 우상파괴 주장

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중세 교회는 성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왔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은 조각과 그림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돕는다는 뜻으로 출발한 것이나, 나아가서 성인의 조각을 교회

적인 고민이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인정하는 자체가 종교의 타락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그렇다면 루터는 칼슈타트의 성상파괴론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설교를 통해 그들의 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는 예배가 중세 교회에 의하여 포로로 잡혔다는 극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비록 중세 교회의 건물은 눈부시게 화려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의 음악을 구사하였지만, 미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 근거를 그리스도 피의 공로에서 찾아... 내 기준 아닌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루터는 자국어 예배, 회중찬송 등 예배자의 적극적 자세 맞춰 예배의 개혁 시도

의 중심에 만들어 놓았다. 예수가 아닌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것이다.

루터의 동지였던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의 급진적인 사상으로 인하여 비텐베르크 시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성상을 반드시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시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지적이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칼슈타트는 1522년에 작성한 “이미지의 폐기에 관하여”란 논문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였

하였을까?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였다. 그는 신학적으로 성상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만일 성상이 성도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고 도리어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일이라면 당연히 파괴되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칼슈타트의 급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단순히 성경에 근거한 개혁을 시도하는 의미에서 성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킬까봐 로마가톨릭교회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폭력에 대하여 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성상에 대한 루터의 입장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마치 그가 성상을 수용하였다는 뜻으로 그의

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는 1523년에 “회중 안의 거룩한 예배 질서론”이라는 논문을 저술하였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하여 예배에서의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세 교회의 라틴어 설교가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꼬집었다. 사제들이나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영적 유익도 기대할 수 없는 오류임을 지적한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중한 행위로서, 반드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한 것이다. 칼슈타트와의 논쟁은 루터가 바르트브르크 성에 머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는 뜻이다. 그는 이와 같이 초기부터 미사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는 구교의 성만찬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비성경적임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들이 미사를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루터는 예배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결코 구약의 희생 제사와 동일시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루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서 찾았다. 그가 갈보리에서 드린 희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사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배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리더십 코멘터리 (41)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리더십 업그레이드 솔루션

오늘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곤했는가?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 직장 목회지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책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런 일들을 잘 견디는가?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배우는 일이 힘들어도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 유익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름답고 거룩한 미래 계획이다. 세상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이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환경에 억눌리지 말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

되는 것이다. 도전은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가능하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영원히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동은 배움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또한 배움의 자연적인 열매가 행동이 아니다. 학력은 높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리더, 명문대를 나왔지만 영향력이 없는 리더들이 많다. 리더가 되려면 행동과 경험을 통한 배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상에서의 배움과 행동과 경험을 통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라.

### 확고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총체적 삶의 변화 이루어야 환경 두려워 말고 절망속 희망 바라며 자기변화 꿈꾸라

한 배움은 언제나 동시에 있어야 한다.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믿고 행하는 것은 총체적인 자기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도전함으로써 한 가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환경을 정복하라**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 강을 항해하고 있는데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었다.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보니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새까맣게 탄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죽어 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페루의 선원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 죽어 가고 있소.” 페루 선원들은 아마존 강물을 퍼 올려 스페인 사람들을 먹였고 그들은 정신을 차렸다. 스페인 선원들은 사실 넓은 아마존 강에 떠 있었다. 그러나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환경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느낀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절망이

라는 이름의 바다이다. 인생 업그레이드의 조건은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이다. 두려워하면 실패한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지만 불신앙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이다. 환경적인 시련의 원인은 의심에서 비롯된다. 인생에는 의심으로 말미암는 시련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의심’의 독일어 단어는 두 겹, 두 가지란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의심이란 ‘두 가지 마음’이란 뜻이다. ‘의심’의 그리스어 단어도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 ‘두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만약 사람이 동시에 두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변화의 비밀을 깨달으라**  
우리는 인생길에서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 사람은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변화를 싫어하고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평생

신 고통의 짐을 지고 인내하며 인생 길을 전진해 나가자. 연단과 훈련이 모두 끝나는 그 환희의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당신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를 변혁시키는 혁명을 꿈꿔라 리더십 업그레이드의 조건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도전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자기변화의 도전이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 자기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에게 발전과 진보가 없다.

기업이 항상 20년 전 모델만 생산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명문대 출신 교수라도 옛날 이론만 강의한다면 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20년 전 신학교에서 배운 것에만 고착되어 있어서 세상 탓만 하고 사회 탓만 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기독교공동체가 과거에 해오던 편한 것만을 전통으로 삼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사라지고 미래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기 변화는 고통의 과정이다. 자기 변화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리더십 업그레이드

를 꿈꾸는 리더는 ‘자기 변화의 혁명’을 꿈꾸고 ‘자기 변화의 혁명’에 도전해야 한다. 진정한 혁명이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나를 통째로 뒤집어 변화시키는 일이다. 나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지 않고서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자기 방어적이 되지 않고, 자기 개방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나의 단점을 고칠까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3년마다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5년째는 자기혁명을 꿈꾸라. 나를 속 사람부터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더 나은 리더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굳어진 습관들을 바꿔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과 굳은 각오로 재무장을 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과거의 자기를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서 ‘자기 변화의 혁명’을 꿈꾸기를 바란다. ‘일상 속의 나를 뒤집어 변화시키는 혁명’, ‘나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혁명’을 꿈꾸기를 소망한다. 리더여, 역사를 휘젓는 혁명도 개인의 결단과 변화에서 시작됨을 결코 잊지 말자.

sondongwon@g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함께하는 길

올 봄은 겨울에 넉넉히 내린 비로 꽃이 만발하였던 봄이었다. 토요일이면 산으로 들로 나가고 싶었지만 사월 초까지 마쳐야 할 일이 있어서 토요일에도 도서관에 앉아 있느라 봄을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드디어 사월 초에 할 일이 끝나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마침 어느 집사님이 샌디에고 동쪽에 있는 엔자 보리고 국립공원이 만개한 꽃들을 너무 아름답어서 멀리 산호세에 사는 아는 분도 꽃구경을 왔다고 하면서 웹사이트를 보내주셨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정말 사막 같은 공원에 예쁜 꽃들이 만발한 풍경이 있었다. 그러잖아도 봄나들이를 하고 싶던 참여해서 매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놀러가요” 하고 바람을 넣었다.

토요일 아침에 다섯 명이 함께 모여서 샌디에고로 향했다. 두 시간 반 길리는 가깝지 않은 길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소풍가던 어린 시절 처럼 깔깔대며 즐거운 마음을 나누며 갔다. 꼬불꼬불 산길을 한참 지나 선인장으로 가득한 사막 같은 곳이 우리가 도착한 국립공원이었다. 파킹장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러온 것인지 햇볕만 쬐고 기다렸던 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 집사님이 안내에 가서 물어보고 오시더니 이미 2주일 전에 꽃이 다 졌다고 폭포 운전하고 폭포 쪽으로 가면 그 쪽에는 아직 꽃이 조금 남아 있었지 모르니까 그 쪽으로 가 보라고 했다.

떠나기 전 날 안내에 꽃이 아직도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바빠서 그냥 떠난 것이 나의 실수였다. 공원 안에는 점심식사를 할 곳도 없어서 스낵으로 가져간 수박 조금과 과자로 일단 시정기를 달래고 폭포 쪽으로 향했다. 운전석 옆에 앉아서 길 안내를 하던 집사님이 폭포로 향하는 길을 놓쳤다고, 벌써 지나간 것 같다고 하셨다. 이제 꽃을 볼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집으로 오는 방향에 가을 단풍과 사과로 알려진 줄리안이라는 동네가 나왔다. 꽃보러 가자고 바람을 넣은 사람이 나왔으니 꽃을 볼 기대를 갖고 먼 길을 갔다가 허탕친 친구들에게 미안했다. 줄리안 상가를 걸으며 꽃만 보이면 “저기 보세요, 꽃 많이 피었네” 그렇게 농담을 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늦은 점심을 먹은 후에 그 곳에서 유명한 애플파이 집에 들려서 디저트를 먹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길가의 farm stand에 들려서 만다린도 사고, 트럭을 세워 놓고 아보카도를 파는 아저씨에게서 아보카도도 사고 그러다 소풍간 분위기를 즐기며 돌아왔다. 동네 중국집에서 짜짜면과 짬뽕도 저녁을 먹고 우리는 하루 나들이를 마감했다. 집에 와서 다섯 시간 이상을 운전하느라 힘드셨을 친구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꽃도 없는 먼 길을 가시게 해서 죄송했노라고 카톡으로 인사를 드렸다. 목사님은 “꽃이 아니라 함께 나들이 한 것이 좋았어요”라고 답글을 보내면서 사실 아침에 집을 떠날 때 꽃이 이미 다 졌을 거라고 생각했노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절없이 좋아서 꽃구경 가자는 친구의 초청에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운전하며 우리를 섬긴 것이다.

그 답글을 읽으며 나는 목적을 갖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비록 계획했던 목적을 못 이루더라도 서로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며 그 과정의 과정조차도 함께 웃으며 헤쳐 나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넉넉해질까? 계획했던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며 이미 힘들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 보다는 함께하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서로를 이해하며 덮어주며 나아가 때 우리의 신앙여정은 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 기도모임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p><b>뉴욕갯세마교회</b></p> <p>담임목사: 이지용</p> <p>Tel: (516)520-2004, mygod@yahoo.com</p>	<p><b>뉴욕목양장교회</b></p> <p>담임목사: 송병기</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p> <p>담임목사: 이윤석</p> <p>Tel: (718)265-2584</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혜천</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p>	<p><b>뉴욕새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정기태</p> <p>Tel: (917)733-7387</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허윤준</p> <p>Tel: (718)637-1470</p>	<p><b>뉴욕새사람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원</p> <p>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p>
<p><b>뉴욕순복음안다교회</b></p> <p>담임목사: 이만호</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p>	<p><b>뉴욕초대교회</b></p> <p>담임목사: 김승희</p> <p>Tel: (347)502-2571, Fax: (347)502-2570</p>	<p><b>뉴저지성도교회</b></p> <p>담임목사: 허상희</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p>	<p><b>리빙스톤교회</b></p> <p>담임목사: 유상열</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p>	<p><b>퀸즈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국</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p>	<p><b>퀸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이규섭</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p> <p>■ N.Y.: Tel: (718)886-4400</p>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2017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란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세계날 저녁집회에서 목회자부부찬양단이 찬양하는 모습

### “교단 내 중대결정, 성령의 인도대로” KUMC 정기총회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 주제로

미연합감리교회한인총회(KUMC, 총회장 김광태 목사) 정기총회가 LA 힐튼 에어포트호텔과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란 주제로 개최됐다.

나뭇가지요 줄기가 된다. 이미 주님의 축복으로 한인공동체는 교단 전체의 부분으로 결가지가 아니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KUMC에 영백으로 축복하시고 역동적인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바라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김광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금년 한인총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인총회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며 "주지하시는 대로 우리 교단은 인간의 성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차이로 인해 큰 소동을 겪고 있다. 교단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를 원한다. 이제 다가오는 변화와 혼란 속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일을 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3일에 걸친 저녁 집회는 서부, 중부, 동부 지역연합회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했는데 서부지역에 이어 둘째 날 저녁집회는 중북부지역 총회장 정건수 목사(디트로이트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열려 임찬순 목사(성무가연합감리교회)가 '그날이 오면, 그 분이 오시면'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4일 저녁 LA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개회예배는 김광태 총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UMC칼렉연회 그랜트 하기가 감독의 환영사 후에 립학준 목사(칼렉연회 한인코커스회장)가 '하나님의 해비타트'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조영진 감독이 집례하는 성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 날 오후 5시30분에는 은퇴자와 안수자를 축하하는 뱃캣이 열렸는데 조영진 감독의 축사와 함께 김용민 목사 등이 색서폰을 연주하는 특별 연주회도 열렸다.

총회에서 박정찬 감독(펜실베이니아 서스콰하나연회)은 축사에서 "다가오고 있는 역사적 차원의 큰 도전을 앞에 두고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어떤 공동체도 미래 여정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염려와 긴장과 불안이 없을 수 없으며 한인공동체도 예외일수는 없다"며 "함께 연대해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란 금번 총회주제가 마음에 와 닿는다. 제가 섬기는 연회도 통일성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합이 더 좋습니다(Better Together)'란 4년차 주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셋째 날 저녁집회는 홍사라 목사(회계, 미누가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열려 김대준 목사(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가 '사랑해, 당신!'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희수 감독(위스컨신연회)도 축사를 통해 "KUMC 공동체는 연합감리교회 전체 거목 중에서 건설한

또 매일 아침 경건회 시간엔 고정열 목사(타보하이츠 UMC)가 'More Like You'란 제목으로, 이연신 목사(웨슬리파운데이션)이 '듣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영준우 목사(오클라호마 제일연합감리교회)가 'Ministry and Love'란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또 연대기관 보고시간엔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 김리자 권사), 총회 고등교육 사역부(박희준 목사)가 사역보고시간을 가졌고 총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느헤미야 운동,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타인종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학생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 등이 사역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6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제36차 정기총회 총회장 김명옥 목사, 부총회장 지용웅 목사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AGKDC) 제36차 정기총회가 "성령이 임하시면"(행전1:8) 주제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아너스 헤븐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역자), 최복래(순복음라스베가스교회 부교역자).

△총회장 김명옥 목사 △부총회장 지용웅 목사 △총무 홍래기 목사 △지방회장: 동북부 김영철 목사, 동중부 감창만 목사, 동남부 총회직할, 중북부 김백신 목사, 중남부 표성준 목사, 서북부 인형일 목사, 서남부 박경희 목사.

안수식은 권필립 목사 사회로, 찬양과경배 프라미스교회, 대표기자회, 설교 조지 우드 AG 총회장, 서약 및 안수식 김명옥 목사, 전임 목사 기존 안수 승인, 축사 함윤식 목사(증경총회장), 권민 이광희 목사(증경총회장)와 박병동 목사(전역군목), 답사 전일필 목사, 공로패 증정, 헌금과 기도 김영철 목사, 광고 홍래기 목사, 축도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날 개회예배 후에는 목사안수식이 열려 5명이 안수 받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편 AGKDC 지난해 회계 결산은 49만4천 달러이며, 새 회기예산으로 53만 달러를 통과시켰다. (기사제공: AGKDC)

김미경(함께하는교회 담임), 박경자(가나안한인교회 담임), 이권울(휴스튼순복음교회 부교역자), 전일필(뉴저지프라미스교회 부교

### NCKPC 마지막 공천 총회장 지선묵 목사 제46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 내년부터 총회석상서 투표로 선출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제46회 정기총회 및 전국대회가 서울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회개, 변화, 회복(히12:2)"라는 주제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300여명이 참가 한 가운데 열렸다.

사(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26일 저녁에는 사무총회가 열려 전날 설명된 회칙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전날 설명과 달리선묵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관 목사들도 정회원이 되며, 차기 총회장 선출지침을 약간(1번 4-5번째 항의 '지난 10년간'을 삭제) 손보았다.

내년부터는 2개 지역을 돌아가며 공천이 아니라 총회석상에서 투표로 경선한다. 또 앞으로 사무총장 체제로 한인총회가 운영된다.

새로운 NCKPC 임원을 선출했다. 구법에 따르는 마지막 공천을 발표한 공천위원장 박상천 목사는 △총회장 지선묵 목사(앤 쿠버한인장로교회) △부총회장 원영호 목사(가주 새장로교회) △평신도 부총회장 최경화 장로(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등을 공천했다. △서기 김원준 목사는 유임됐으며 나머지 임원들은 새회장단에 위임했다. 3년 임기의 △총무는 박성주 목

26일 오후 3시에는 헌의안 보고, 정책위 건의안 및 새회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총회에서 NCKPC의 명칭중 "Council"을 "Caucus"로 바꾸기로 했다.

또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성주 목사, 부위원장 조기원 장로)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친교중심이었던 NCKPC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해 교단내 정체성과 영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교단의 흐름과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NCKPC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 임무를 명확히 했다.

2018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총회는 하와이에서 열릴다. (기사제공: NCKPC)

3년 임기의 △총무는 박성주 목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북미주 개혁교회 한인 교회협의회(CRC)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한인 CRC '개혁신앙 영성' 주제 34차 총회...회장 김동일 목사, 부회장 김문배 목사 선출

북미주개혁교회한인교회협의회(The Korean Council of Christians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한인CRC) 제34차 정기총회가 24일 오후 7시 뉴저지 에 있는 사랑의 글로벌비전교회(담임 김은범 목사)에서 개막했다.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개혁신앙 영성"이라는 주제로 26일까지 3박4일 동안 계속된 이번 총회의 첫날 일정은 저녁 식사, 개회 예배, 회무 처리, 폐회 예배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찬식은 직전 회장 임배을 목사가 집례했으며 중경회장 조정주 목사의 축도와 총무 김문배 목사의 광고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개회 예배는 부회장 김동일 목사의 사회로 서기 광부한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박성재 목사가 요한복음 12장 20-36절을 본문으로 "썩은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회무는 회장 박성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원선거는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현 부회장 김동일 목사(LA 생명찬교회)를 차기 회장으로, 현 총무 김문배 목사(그랜드레이크 피츠 한인연회교회)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총무에는 문상면 목사(세리토스 우리교회)를 선출했으며 서기와 회계는 회장단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개회 예배는 부회장 김동일 목사의 사회로 서기 광부한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박성재 목사가 요한복음 12장 20-36절을 본문으로 "썩은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선교위원회가 보고한 "현재 임원의 임기를 2년간 유임하기로 하고 이사장 변창국 목사와 서기 김갑원 목사가 'KC 선교위원회 정관'을 만들기로 하다는 안을 받아들였다.

회무는 회장 박성재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박성재 목사가 요한복음 12장 20-36절을 본문으로 "썩은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9월말에는 종교개혁의 주요 발자취를 돌아보는 여행을 겸한 현지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한편 AGKDC 지난해 회계 결산은 49만4천 달러이며, 새 회기예산으로 53만 달러를 통과시켰다. (기사제공: AGKDC)

이날 전임회장 박성배 목사와 지난 25년간 총회를 개근한 박형주 목사, 20년 개근한 오세호 목사에 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에서 강사 민경엽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기도/칼럼

###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박승훈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부활'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왜 '생명'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해 하는 자들이 있다. 성도만 부활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불신자도 부활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 곳곳에 두 종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 하고 있다. 죽을 때는 구원받은 자나 구원 받지 못한 자나 모두 똑같이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확연히 다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심판의 부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의인은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 영광과 찬송가운데 거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혼과 결합되어 지옥 불 못에 떨어져 영벌에 처하게 된다.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예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이 일어난다. 첫째 부활이다. 하나님 백 보좌 심판 때에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아직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성경을 읽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육신의 생각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면 영혼과 몸이 함께 지옥에서 멸망 하게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땅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라도 일으킬 수 있다. 창조자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주니 주님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11:25).

bible66@gmail.com



나성중앙 UMC에서 열린 2017년 부활절 음악회에서 USC음악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룬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 다인종에게 부활의 소식을...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2017년 부활절 음악회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조승훈 목사)는 2017년 부활절 음악회를 4월 30일 오후 4시30분 개최했다.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승훈 목사는 "기쁘고 복된 부활의 소식을 오케스트라로 전하는 부활절 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음악회는 다인종의 화합과 연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USC음악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룬 성가대가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가 하나님

조승훈 목사는 "기쁘고 복된 부활의 소식을 오케스트라로 전하는 부활절 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음악회는 다인종의 화합과 연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USC음악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룬 성가대가 함께했다. 이번 음악회가 하나님

(박준호 기자)

### 샬롯장로교회 설립4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가 설립 40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개최했다. 강사 LA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는 30일 주일저녁 제직 세미나까지 인도했다.

가 넘치는. 이 시대의 앞서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소개하며 "특히 최근에 건강 이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도 오려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더 알뜰히 이해하고 보살피게 된 사람이 넘치는 목회자로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샬롯장로교회)

나성근 목사는 강사 민경엽 목사에게 "서울과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목회훈련을 듣는데 받았고 제자훈련과 찬양의 은혜



# 동부교계 게시판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세미나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정영춘 목사) 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 세미나가 5월 22일(월)과 23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심령이가난교회(담임 이종태 목사)에서 열린다.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는 목회 패러다임" 주제로 열리는 이 세미나 강사는 황의영 목사(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총재). 참가비는 30달러(식사, 교재비 포함)이며 선착순 40명에 제한한다. 등록마감은 5월 13일까지.

▲문의: (917)386-8852

## 제 31회 뉴욕교협 연합체육대회

제 31회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연합체육대회가 올해는 14개 지역대항으로 진행된다. 일시는 5월 29일(월, 메모리얼데이) 오전 8시 장소는 예년과 동일하게 플라싱 메도 우코로나 파크에서 열린다. 경기종목은 △배구(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족구(성인 남녀 혼성) △줄다리기 △축구(4개팀 이상 신청시). 출전선수는 해당지역 교회 성도와 사역자이며 5월 15일(월)까지 종목별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비는 종목당 100달러.

▲문의: (718)279-1414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제 39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강유남 목사) 제 39회 정기총회가 5월 22일(월) 오후 4시부터 24일(수) 정오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목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3:5)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의 회비는 100달러(부부동반 150달러)이며 숙박은 총회에서 부담한다.

▲문의: (201)705-8496, (551)655-4224

##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1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러시아권 설립1주년 기념예배가 5월 28일(주) 오후 4시에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또 29일 메모리얼데이에는 전교인 한마음축제가 벨몬트 레이크 파크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 비전장학생 선발

아름다운교회(담임 황인철 목사)가 2017 비전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한인(Korean-American) 기독교인으로서 풀타임(학기당 최소 9학점 등록) 목회학(M.Div.) 전공자,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청소년(EM)사역의 비전을 가진 자, 거주지는 NY, NJ, CT, RI, MA, PA에 한한다. 장학금액은 학기당 2천 달러. 모든 서류는 교회 웹사이트(www.arumdaunchurch.org/visionscholarship/)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6월 3일(토).

▲문의: arumdaunvision@gmail.com

## 제 3회 은혜 나누기 후원찬양제 주님의식탁선교회 주최, 케리그마남성중창단 정기연주회로

주님의식탁선교회(대표 이종선 목사)가 주최한 제 3회 은혜 나누기 후원찬양제가 케리그마남성중창단 정기연주회로 함께 열렸다. 지난 23일 저녁 6시 뉴욕교회에서 열린 찬양제에서 이종선 목사는 뉴욕에 도착해 자신도 무속자 생활을 경험했던 간증을 곁들여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는 "남자 무속자들을 위한 쉼터인 은혜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을 안위하고 세워주실 건강한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소원한다. 함께 동참해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행복한 한인 인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80여명이 참석한 찬양제는 1부 예배, 2부 후원찬양제로 나눠 진행

됐으며 케리그마남성중창단 외에 플루티스트 김하경, 소프라노 박진원 등이 출연했다. 또 윤세웅 KCBN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주님의식탁선교회)



주님의식탁선교회 후원찬양제에서 카리스카남성중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 “다시 참 개혁교회로!” 주제

## 2017 AKRCA 연합부흥성회, 강사 김재규 목사



2017 AKRCA 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기독교인회 2017년 첫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뉴욕기독교인회 2017년 첫 모임

뉴욕기독교인회(회장 김진화 목사)가 2017년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28일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주제로 가진 예배는 김재규 목사 인도로 기도 마바울 목사, 설교 윤성태 목사, 특송 최지혜 선생, 권민 허걸 목사, 축사 신현택 목사 황경일 목사 이재덕 목사, 축시낭독 조의호 목사, 특별찬송 전란영 선생, 인사 김진화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성태 목사는 “백부장의 믿음”(마8:5-13)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본받아야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인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장 김진화 목사는 “기독교인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며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하찮게 여기는 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한다”며 “뉴욕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교회와 가정에 기도의 풍요로움이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뉴욕기독교인회는 분기별로 모임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에 마음을 같이해 기도하며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으며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면 한국과 해외의 전 기독교인회 회원들이 읽는 책자에 게재할 수 있다. 또 한국 소식과 월간/계간 잡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뉴욕기독교인회는 한국예비역기독교인연합회 산하 미국동부지회로 소속돼 있다. 한국 기독교인회는 1956년 10여명이 모여 미군복 Palm중령의 지도로 시작했다.

▲연락처: (347)721-6003, 이메일: life9191@gmail.com

(유원정 기자)

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후부터 행복하게 목회했다”며 “첫째, 목회철학을 세우라: 코람데오의 목회관을 가져라, 둘째, 목회비전을 세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담전, 단)는 예루살렘교회(성령충만한 교회, 교회지도자 바로 세우기)와 안디옥교회(세계선교의 장을 연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 목회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의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재규 목사는 금, 토, 주일 저녁집회를 통해 “참 교회상”(창 12:1-9), “복된 교회”(엡2:12-22), “오늘의 오병이어 기적”(요6:1-11)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강사 김재규 목사는 예정대신 소속으로 안양신학과 대학원과 미 컬럼비아인터내셔널대학교 선교대학원과 뉴욕신학(D. Min)을 졸업하고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여러 단체를 섬겼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역되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이상열 목사) 4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선교 일정과 지원 선교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국내선교국장) 인도로 기도 심화자 목사(홍보국장), 설교 박진하 목사(고문), 합심기도 인도 전희수 목사(사무총장), 축도 이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행4:5-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도전하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자”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아대책,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기아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는 이상열 목사의 개회 기도 후 시작돼 사역보고 전회수

목사, 회계 보고 권금주 목사, 광고 박이스라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017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사역으로 예정된 엘살바도르(황영진 선교사) 단기선교 일시(8/14-17) 변경 여부는 현지 선교사와 연락해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선교참가자 신청마감은 5월초.

과테말라(장경순 선교사) 지원 선교를 위해 이찬양 간사가 5월초 현지를 방문해 컴퓨터와 화장실 및 부뚜막 개선사업 후원금을 전달한다. 과테말라는 올해부터 아동후원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돼 2018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단기선교지로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상열 회장은 홈페이지(www.breadngospel.org)와 이메일(breadngospel@gmail.com) 변경을 주지시키고 조속한 홈페이지 오픈을 독려했다.

5월 정기모임은 24일(수) 오전 10시 30분 뉴욕참사목교회(담임 은희곤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 목사회 주관으로 열린 사도영성세미나에서 강사 홍향표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영성 세미나” 뉴욕 목사회 주관, 강사 홍향표 목사

뉴욕 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관한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영성 세미나”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대한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렸다.

김상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기도 한문수 목사, 강사소개 사도영성신학원 미주본부장 주디 최 목사에 이어 홍향표 목사가 강의했다.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왔다는 홍향표 목사(한국 사도영성신학원장)는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도영성, 그 이론과 실제’

(유원정 기자)



###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1. 나이제한: 40-50세
2. 개혁 보수 신학 대학원(M.Div)을 마친 분
3.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4. 5년 이상 목회 경력과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목회비전, 성장배경, 가족소개서)
4. 설교(가장 최근 것 CD나 동영상)
5. 추천서 두분의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추천하신 목사님이 직접 우송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7. 제출서류 서류 마감일: 2017년 6월 15일

#### 제출처 주소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교회: www.hopestl.org  
Tel: (314) 369-9450 오귀록 장로  
Email: jbm316@yahoo.com

• 교회비전 •

위로와 심을 얻는 교회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랑을 품은 교회  
추수하는 교회



# 'My Witness' 주제, 집중력 높은 집회로 제36회 HYM 청년연합집회, 강사 강대형 목사

HYM(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가 주최한 제 36회 HYM청년연합 집회가 'My Witness(행1:8)'라는 주제로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제36회 HYM청년연합집회에서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집회 강사로 나선 강대형 목사(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는 첫날 이사가 55:4-6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한다. 참된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가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며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죄를 버리고 예수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이 터닝포인트 되는 참다운 부르짖음과 회개가 일어나길 바란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 뜻 안에서라면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둘째 날 사도행전 1:8 말씀에서 "성령은 나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나의 증인 된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체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교리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주인으로 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고 실제적으로 하나님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들의 궁극적 꿈은 하나님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다. 우리 안에 선포된 복음을 온 삶으로 전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나라가 진짜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를 꿈꾸자. 성령충만함 받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HYM연합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인도와 강대형 목사의 도전적인 말씀선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과 장년들이 하나가 돼 뜨겁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등 시종일관 집중력 높은 집회로 진행됐다.

또한 청년들이 아닌 은혜를 사모하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참석해 눈물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모습은 세속화물결에 편승한 이민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을 보기에 충분했다.

한편 제37회 집회는 10월중에 열리게 된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선교적교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강의에서 강사 최규진 목사(포틀랜드빌리지교회 한어회중담당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선교적교회에 관해 열린강의

아주사퍼시픽신학교가 주최한 선교적교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강의가 '21C 선교적 교회'의 한 모습으로 다문화교회 이야기라는 주제로 4월 26일 LA 센터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최규진 목사(포틀랜드빌리지교회 한어회중담당 목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진행됐으며, 어떻게 하면 선교적교회를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잘 이루어갈 지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 창립 24주년 부흥회에서 강사 김승욱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복음의 계승' 주제, 강사 김승욱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설립 24주년 부흥회 성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설립 24주년 부흥회가 '복음의 계승'이라는 주제로 4월28일부터 30일까지 김승욱 목사(분당할렐루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세대까지 품으라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아무리 짐을 화려하게 세워도 터전이 험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터는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믿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만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며 "진리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게 위해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자녀들과 뛰어 들어가 말씀 안에 세워지고, 시대가 변해도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1시45분에 열린 마지막 집회는 본교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윤대혁 목사의 인도로 시작, 이영진 장로의 기도, 시온성가대 찬양에 이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담주 3:14-4:5)이란 제목으로 김승욱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설립24주년 임직예배를 드리고 3명의 장로, 1명의 명예장로, 21명의 권사, 그리고 4명의 안수집사를 세웠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허락한 은혜가 많지만 주님오시기까지 주님의 터전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때까지 가야 한다. 더 많은 영광 은혜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의 계승이라는 주제를 잡아왔다"고 설명하며 "복음의 계승은 다음세대를 생각하면서 영적 바톤을 넘겨야하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나

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세대까지 품으라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아무리 짐을 화려하게 세워도 터전이 험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터는 진리의 터,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믿음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인만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며 "진리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게 위해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속으로 자녀들과 뛰어 들어가 말씀 안에 세워지고, 시대가 변해도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714)446-1000 (박준호 기자)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에 참석한 참석자들 모습.

## 비전케어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와 화랑리 오름클럽(회장 사라박)이 4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한인들에게 무료로 진행됐다.

남가주간호사협회(회장 카렌조) 등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진, 한나김 두 명의 한인 안과교사가 참여하며 화랑리오름클럽의 한인 청소년들과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2012년부터 6번째 타운 내에서 무료 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70여명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으며, 올 6월에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무료 개안수술 해외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LA한국교육원 2017년 성인교양강좌(5월-7월) 실시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 680 Wilshire Pl. #200, LA)은 이번 1세 성인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교양증진을 위해 2017년 성인교양강좌(5-7월)를 실시한다. 성인교양강좌는 초급영어, 중급영어, 컴퓨터 초급, 컴퓨터 중급으로 구성되며, 5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13주를 운영하고 수강료는 강좌당 월 30달러다. 주차비는 별도.

▲문의: (213)386-3112, 3113

### 드림전도축제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는 5월 12일(금) 저녁 7시 30분, 13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30분 14일(주) 오전 8시, 11시 김상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감독)를 강사로 초청해 전도 축제를 갖는다.

▲문의: (672)793-0880

### 남가주사랑의 교회 장학생선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광수 목사)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1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및 타인종 학생,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해외지역 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신학생 등이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www.kdfs.sarang.co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714)397-3334

### 은혜한인교회 설립 35주년기념 축복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설립 35주년기념 축복성회가 5월 18일(목)부터 21일(주)까지 한기홍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를 초빙,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714)446-1000

### OC제일장로교회 부흥집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가 주최하는 부흥집회가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양곡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5일 저녁 7시30분, 6일 오전 6시 저녁 7시 30분, 7일 1부(오전 8시15분), 2부(오전 10시30분).

▲문의: (714)891-2029



새월호 3주기 기념 추모음악회가 마가교회에서 열렸다

## 세월호 3주기 기념 추모음악회

세월호 3주기 기념 추모음악회가 마음이가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지난 15일 오후 7시 '세월호 3주기 기억행동 LA본부' 주최로 열렸다.

UCLA에 재학 중인 강이슬(22) 자매와 USC의 이수인(21) 자매의 사회로 시작된 음악회는 가수겸 공연기획자 주성, 고등학생으로 구성

된 실내악단 The UNIT, MCX the Band, 하프연주자 아넷 리(블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어유경, 김은혜, 베이스 이사호, 피아니스트 박세화, 임희열 어린이가 출연해 잔잔한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b>남가주주둔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Tel: (949)854-4010, Fax: (213)481-3761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광수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b>대동성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Tel: (310)749-4756	<b>베델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효 Tel: (949)854-4010, Fax: (213)481-3761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택 Tel: (562)694-6214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 Fax: (818)893-8607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l.com Tel: (714)446-8280, Fax: (714)446-8207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b>종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www.socalsamsungchurchof.com Tel: (714)646-8289, Fax: (714)646-8284
<b>미주양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9079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www.mpcia.org Tel: (213)384-2202, Fax: (213)384-2535	<b>요셉선교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rstoneliv.com Tel: (310)370-5500, Fax: (310)370-8400
<b>일버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8425, Fax: (949)857-8472	<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 기독교자유당 '홍준표 범기독교 지지' 파문 "범기독교라니!" 교계 발끈...한기총 한교연, 반박성명

기독교자유당이 2일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도 동참하는 것처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두 단체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기독교자유당의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후보 지지성명을 낭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가 인사말을 한 뒤 홍 후보가 인사를 했다.

전 목사는 "홍 후보만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정책을 강조해 기독교자유당과 범기독교교계가 지지 선언을 하게 됐다"면서 "홍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이만반 대통령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와 기독교 입국론으로 통일을 이뤄내자"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친북좌파 정권에 대한 경각심이 홍준표 지지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기독교계의 지지 선언은 그동안 대선에선 없었는데 이는 친북좌파 정권은 안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의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자유당은 이날 기자회견 초정단체로 한기총과 한교연 등을 적시해 마치 이들 단체가 홍 후보 지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내비쳤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

목사와 홍 후보가 '범기독교' '기독교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교회 다수가 홍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한기총은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독교자유당의 주장과는 거리를 뒀다. 한기총은 "대선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한다"면서 "한기총은 국제 정세와 북한의 도발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투철한 국가안보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요청하며 모두 투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자유당이 홍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교연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 분이 되어야 할 기독교가 오히려 집단적으로 나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야 할 1000만 기독교

인들의 신앙 양심에 역행하는 일이고 현실정치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기독교계가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총 한교연과 함께 초정단체로 적시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기지협·대표회장 신신목 목사)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신목 대표회장은 "홍 후보 지지 관련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기지협이 왜 언급됐는지 황당할 뿐이다. 동참의사를 묻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고 지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은 이날 총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치적 중립을 천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근 기독교계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본교단과 상관이 없으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예장대신 총회는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정의평화기독교대선행동도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성직자가 기독교 유지를 위해 범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정치편에 끼어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있다. 윤경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은 "3·1운동 100주년을 2년 앞두고 기념비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면면을 최초로 밝혀낸 것은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신앙 선배들의 비폭력정신과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교단 간 공동연구의 가능성도 타진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최근 일본의 사료를 바탕으로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책임자인 한규무 광주대 교수는 "3·1만세운동이 특정 교단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추가 연구는 반드시 여러 교단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예장통합과의 공동연구가 성사된다면 만세운동 100주년을 더욱 의미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교회사에서 최초로 진행된 일이라는 데 의미가

## 동성애 문제, 대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상 처음 후보들 TV토론회 메뉴로...뜨거운 격론

대통령선거 TV토론회 사상 최초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도와 보수 표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성애 문제가 안보 경제 양극화 등의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홍준표 후보 대선 공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5일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총 1분40초간 동성애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며,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육군 A대위가 사병과 동성 간 성행위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시켰다가 군형법 제92조의 6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의 영두에 또 발언이었다. 문 후보는 홍 후보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힌 뒤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홍 후보는 퀴어축제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국교회는 공공장소에서 부도덕한 행사가 열리는 현실과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해왔다. 문 후보는 이 문제를 개인적 비교감 표명과 차별금지 논리를 앞세워 피했다.

그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으며,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홍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환자)가 1만 4000명 이상 창궐하는 것을 아느냐"면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후보는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이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꼬집었다.

TV토론 후폭풍 거세

두 후보의 토론을 들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분 발언권

찬스'를 얻어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 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이라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을 계속 공약으로 냈는데 그것을 후퇴한 문 후보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성적 취향을 성적 지향으로 포괄해 불변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조정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동성애 운동가들은 이날 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장에 '성 소수자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난입했다.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문 후보 지지자들과 동성애 옹호론자들 사이에 동성애 찬반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소강석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대표회장은 "동성애 이슈는 신앙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제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공적 주제"라면서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부까지 퍼진 군대 내 동성애 위험수위...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 '부대 밖 성추행도 처벌을'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없어지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문화에서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이어 "군대라는 무장 집단 안에서 동성 간 성폭행은 대형 인명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 전 육군 법무실장은 동성 간 부대 내 추행행위 뿐만 아니라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부대 밖 추행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2년 제정된 군형법은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폐지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그러나 2002년 2011년 2016년 3차례

위헌법률심판이 제정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각각 6대2, 5대4, 5대4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군형법이 있는 것은 군 특성상 병영 내에서 동성 간 관계에서 상관을 지시를 거역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성 간 영내 추행행위를 금지하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영외 추행행위도 처벌하는 입법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영준 법무법인 지스투스 대표 변호사는 "헌역 대위가 사병과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가 구속되고 31명의 장교 부사관 등이 조사받은 최근 사건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알선하는 스마트폰 앱을 보면 이 같은 행위가

부대 안팎을 불문하고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형법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법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성매매 도박죄도 사회적 법익을 앞세워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이런 이유로 군인 간 성행위 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성 간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며, 성인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현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합의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포럼은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바른성문화회연합회한국인연합 건강한 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6개 단체가 주최했다.



용인성령대회 및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에서 이수형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2017종교개혁500주년 용인성령대회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 개최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대회장 소강석 목사는) 용인성령대회 및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을 4월 30일 저녁 7시 용인 새예언교회 대성전에서 개최했다. 설교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맡아 시편 3:1-6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하프타임'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 원장 안준배 목사의 인도로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을 헌정했다.

안준배 목사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며 평양대부흥 11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기독교성령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7년에 이르러 한국기독교성

령100년인물사 전4권을 간행했다. 이에 목회자 57인, 한인목회자 5인, 부흥사 25인, 신학자 19인, 교육자 16인, 선교사 29인, 독립운동가 14인, 순교자 4인, 사회봉사 18인, 교계연합 10인, 각 분야에서 성령과 동사한 197인의 삶을 한국교회사에 헌정한다"라며 헌정식을 인도했다.

한국기독교성령백년인물 헌정식에서는 이수형 목사와 안준배 목사가 목회자부문 헌정자 소강석 목사와 사회봉사부문 헌정자 정금성 권사에게 헌정서와 헌정메달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 막오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계 대응 방안은... 복음은 불변해도 전달방식 변화 모색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들이 다. 우리 삶과 사회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시대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됐다. 교계에서도 목회 선교 신학 등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접하는 시대"

지난달 열린 선교전략연구모임 '방곡-설의 연성포럼' 합의문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선교적 연구와 대안모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올 초 한국선교연구원원이 선교사 154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8.8%는 4차 산업혁명이 선교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교 전문가들은 "복음은 불변성을 갖고 있지만, 복음의 전달 수단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등 주요

선교단체들도 신기술을 통한 선교 프로그램이나 신앙 교육, 예배 등의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일례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고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목회·선교·신학 분야도 대비해야"

오는 9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와 미래'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준비 중인 김한수(한국NCD 대표) 목사는 1일 "4차 산업혁명은 교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밀접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교회는 믿음과 성경의 눈으로 세계관을 제공하는 등 적극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교계의 대응은 현재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신학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목회적 대안 등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연적 교회성장"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NCD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목회 방향으로 '공동체적 교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관계이며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인(全人)적 소그룹 공동체 사역이 목회 분야에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영육(靈肉) 상의 인간의 능력을 개선하려는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문화적으로 향상된 완전한 인간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가' '인간형 로봇을 신학·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신학·목회학적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인간 소외·상실감 회복 고민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급진적인 기술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술 진보에 뒤처지는 이들에게는 불안과 불평등, 인간 소외와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다. 조덕영 창조신학연구소 소장은 월간 '교회와 성장' 5월호에서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는 과학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와 상실감을 어떻게 사랑과 살롬(평화) 안에서 회복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문제 역시 함께 다루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민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선교적 역량과 코이노니아(교제·연대) 영역에서 지난 1·2·3차 산업혁명 때보다 더욱 심화된 감으로 교회에 도전해올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직면하면서 나타나는 약자들의 배제와 소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대 종교과학센터 센터장인 전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인간 존재, 더불어 사는 삶, 기술과 사회, 기술과 인간, 사물과 영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를 넘어 영적인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선교의 창 (77)

## 선교의 DNA를 가진 한인교회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한인교회는 탄생되기 전부터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6만여 한인교회는 지상 과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 없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론적 사명이다. 이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특권이다. 한인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의 DNA를 가지고 있다. DNA는 유전자의 본체이다. 그것은 생략적이다. 따라서 한인교회는 132년의 역사 가운데 한기도 쉬임없이 선교를 해왔다. 어떻게 일제치하에서 신음하며 6.25의 참상 아래 풀뿌리를 먹고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 초창기 한민족 교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신앙을 고수하며 선교를 하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스런 모델이요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산술적 가치에 비중을 두게 된 점이다. 길으로는 크고 화려한 사역들이 펼쳐지지만 내면은 공허한 점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에 우리는 조국교회의 선교적 발자취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면면히 내려온 아름답고 고귀한 선교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1. 만주 성경번역과 선교 활동

한국교회의 선교역사는 특이하다.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복음이 한인을 통해 들려진 것이다. 서상륜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고 동생 서경조와 함께 중국을 왕래하며 행상을 하였다. 그는 1876년 만주에서 로스(John Ross) 선교사를 만나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등과 함께 신자가 되어 세례를 받았다. 그는 로스 선교사와 함께 최초로 누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고향의 주교를 돌아왔다. 그러나 구한말은 쇄국정책으로 기독교의 전래를 금하였기에 외갓집인 황해도 장연군 소재로 피신하였다.

서상륜은 동생과 함께 전도한 결과 1883년 5월 16일 최초 한인교회인 소재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백홍준도 몇몇 청년들도 서상륜과 비슷했다.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며 번역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번역된 족보 즉, 한 개의 복음서 내용만 담은 성경책자를 가지고

들어와 우리 땅 여러 지역에서 배부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이는 성령이 사람을 앞서간 증거이다.

### 2. 독노회(獨老會)와 선교사 파송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7인을 배출하였다. 이로서 외국인 선교부에서 독립된 한국인들만의 자체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드디어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예수교장로회 대한교회"(독노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주 안건으로는 장로회 신경과 정치를 임시로 채택하고 최초 한인목사 7인을 안수한 것이었다. 그들

당시 교세는 교회수 2,054교회, 목사 128명, 장로 225명, 세례교인 53,008명, 교인 총수 127,228명이었다. 이 첫 총회 역시 중국 산동성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환 등 3명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민족적 시련기에도 아랑곳 않고 니느웨처럼 부담스러웠던 중국에 감히 복음의 전령들을 보낸 것이다.

### 4. 근자의 한국교회 선교 실상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후 세계화의 길을 열었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해외 여행자유화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서 선교의 열정이 증만해 있던 한국교회는 붓물이 터지

준비됨을 따라 다양각색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한인 교회의 선교적 유산을 후세에게 전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역의 연속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역이 1세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아쉬운가? 우리 결에는 언어와 전문성 그리고 국제적 정보 등을 가진 차세대 역군들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1세대들이 가진 열정과 헌신이 너무나 약하다.

셋째는 가능한 모든 이와 연합을 해야 한다. 힘은 다른 이와 합칠수록 파괴력이 있다. 과감히 마음을 비우고 예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우리는 좀 더 겸손히 서구의 오랜 노하우를 배우며 앞의 선교사와 손

한인교회는 탄생되기 전부터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6만여 한인교회는 지상 과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교 없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은 서경조, 이기풍, 김선주, 한석진, 송인서, 방기장, 양전백 등이다. 그리고 이들 중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는 한국 기독교사에 최초의 선교사로 이름이 올려지고 있다.

물론 제주도는 우리 문화권의 영토이다. 그러나 당시 교통과 통신, 문화 등을 생각하면 오늘 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것 못지않은 낯선 곳이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등장하였다. 블레어(W.N.Blair) 선교사는 "새로운 한국교회의 첫 모임은 사실상 선교사를 보내는 모임이었다"라고까지 언급하였다.

### 3. 최초 교단 총회와 선교사 파송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내용과 새로운 변화는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설립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한국 컴퓨터 선교학 자료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총회성립의 과정을 기록한다.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평양부 경창리 여성경학원에 회집하여 총회를 조직하니 출석원은 목사 52인, 장로 125인, 선교사 44인이요 임원은 회장에 원두우, 부회장 김필수, 회계에 방위량, 부회계에 김석장이 선거되니라."

5대양 6대륙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KWMA 통계발표에 의하면 2016년말 한국교회는 전 세계 172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다음이며 인구비례로 치면 세계 1위이다. 비단 양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한국선교는 탁월한 헌신 속에 많은 치적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연도별 선교사 파송 수가 2013년을 기점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1,003명 증가, 2014년 932명 증가, 그리고 2015년에는 528명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0명 증가하였다. 파송 받은 자들도 젊은이보다는 퇴직하신 시니어들이 주도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청년들은 선교에 올인(All in)하기보다 선교지를 한번 둘러보는 단기선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선교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추세로 나아가면 우리도 영국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5.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Missional Church로서 성경번역을 해야 한다. 각 교회와 단체 중에서 대표 선수 한두 명으로 이 과업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명을 고취하고 은사와

를 잡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지이다.

### 맺음 말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문구는 1907년 한국교회 최초 독노회가 형성되고 유행했던 구호이다. 한일합방의 먹구름 속에 어리고 가난했던 한국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선교적으로 품을 수 있었다 말인가?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선교적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제는 비서구권 선교 주자로서 세계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잘나서라기보다 모진 고난 속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선교적 이 DNA가 세속문화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뺏기며 거룩한 사명을 소홀히 할 때 성경의 축대는 언제든 우리 결을 떠나게 될 것이다. 선진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 크리스천과 교회들은 선조들의 사역을 본받아 내재하고 있는 선교적 DNA가 표출될 수 있도록 산제사로 늘 드러져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jsong007@hanmail.net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LA총영사관에서 실시됐다

##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 실시 LA 역대 최다수...투표율은 약70% 뉴욕과 비슷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25일 시작돼 30일 종료된 가운데 LA 지역 투표자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5일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등록된 유권자들이 투표장소인 LA총영사관에 찾아와 절차에 따른 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한 역사적인 현장을 핸드폰카메라에 담는 등 과거와는 달리 작은 축제로 승화시켰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총

9,58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18대 대선보다 1,428명(17.5%) 늘었으며, 유권자 1만3631명 중 70.3%가 투표에 참가했다. 18대 대선 79.6%보다는 9.3%포인트 낮다.

타주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뉴욕은 70.65%, 워싱턴 DC는 66.6%,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는 71.1%로 각각 집계됐다.

(박준호 기자)

## 'LA 4.29폭동 25주년 기념예배' 박성규 목사, 한인교계 대표로 기도

지난 29일 오전 11시 45분 'LA 4.29폭동 25주년 기념예배'가 다운타운 First Ame Church에서 드러졌다. 백인, 흑인,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LA시장, 전 시장들과 시의원들, 경찰국장, 소방서 대표 및 시민 3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담임)가 한인교계 대표로 마침기도와 축도를 맡았다. 다음은 박 목사의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쓰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주여! 이 LA에 25년 전 일어났던 아픔을 이 시간 기억하

고 눈물 흘리나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시 희생당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고통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영광스런 미국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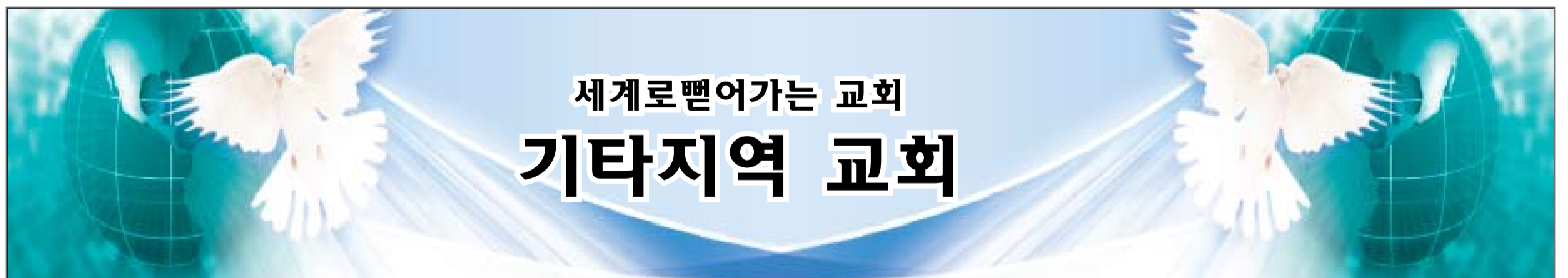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 모든 민족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성령으로 하나되어 이 LA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되어 이 미국을 세계최고의 선교국가로 영광스럽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성경):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수, 목, 금, 토, 일: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45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기도회: 새벽 6:0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목, 금, 토, 일: 오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45 주일 4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b>안다루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8,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b>알라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b>앵커리지벨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422-0288, Fax: (215)542-9037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회: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7시 수, 목, 금, 토, 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찬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b>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b>



## 선교 펴기

### 필리핀 민다나오섬

#### 1. 여름 방학 시작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여름은 건기 중에 건기로 늘 무더운데 갈수록 이상 기온으로 여름방학이라 해도 비가 종종 내려 생각보다 상당히 덥지는 않습니다. 여름방학은 3월 29일에 시작하여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1년에 1월과 7월에 두 번씩 여행금지국을 평가하는데 올해 상반기도 여전히 해제되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인의 여행 금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저희 가족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 금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리비아 6국가이고, 잠보앙가 저희 지역은 나라가 아닌 한 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슬람 국가라는 것은 것입니다. 2017년 라마단이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라마단 기간 중에 전 세계 IS와 이슬람 급진 세력들은 라마단 전후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항상 테러를 감행하였고 여기 잠보앙가 지역의 아부사얌 이슬람 게릴라들은 돈이 필요해서 테러와 납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라마단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며 해가 진 저녁에는 밤새 축제를 한 달 동안 합니다. 여기 잠보앙가 지역에서 라마단 기간 전후로 야채와 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슬람 반군들은 돈이 필요해서 납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어수선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늘 저희 잠보앙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4회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3월 29일에 19명의 6학년 학생들이 4회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저희 새희망 학교에서 6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이웃 마을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졸업한 학생들 중에는 공부할 가정 형편이 전혀 안되는 조셉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결석을 자주하여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줄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주일에 절반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여 품삯을 벌였고, 절반은 우리 학교에 출석하여 공부를 하였던 소년가장 학생이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 작년에 죽었고, 어머니 역시 정신이 온전치 않아 가정을 돌볼 처지가 안되어 조셉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셉의 여동생 로살린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국의 후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라는 학생은 작년에 우리 학교 6학년 중에 1등을 하였습니다. 이번



졸업식에 조이 학생이 와서 후배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해주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일주일에 절반은 생선 통조림 공장에 가서 일을 하여서 그렇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초등학교는 겨우 졸업을 하지만 고등학교 6년은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이 됩니다. 졸업식 가운데 여학생 3명은 그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게 되고, 어려운 가정 상황 가운데 공부를 마치게 되어 눈물을 많이 흘렸고 부모들도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무슬림 마을 안에서 학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이 매일 일 시간씩 기독교 교육을 배우게 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여름 방학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기쁨의 교제를 배우니 학생들이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심어준다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됩니다. 다른 선교지보다 결코 안전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어 감사할 뿐입니다.

#### 3. JCI 팀 학교 방문

3월 30일에는 JCI(JUNIOR CHAMBER INTERNATIONAL, 젊은 기업인 상공회의소)에서 학교를 방문 하였습니다. JCI와 관련된 회원들 30여명이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학교 설립 이후 7년 만에 학교 안에 12대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어촌 시골 마을에 학생들, 학부모들, 군인들, 경찰들, 손님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JCI 회장이 왔고 다른 도시에서도 여러 임원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여 의원 총회와 행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치과, 건강검진, 미용, 응급시 대체 요령, 선물 전달, 학생들 점심 제공,

게임, 어머니들 건강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여기 잠보앙가는 한국인 단기 선교팀이 올 수 없게 되었지만,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도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 4.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8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새로운 찬양과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보통 여름성경학교는 5월에 하는데 갈수록 여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 조금 앞당겨 하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에는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간식도 하루에 두 번씩 주고, 공작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성경 말씀 암송 대회도 합니다.

여름성경학교를 5일 동안 하면서 중간 중간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엔 달란트 티켓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주일 예배 때에는 달란트 시장을 하여 선물을 풍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할 때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학용품, 옷을 준비하여 책상 위에 펼쳐 놓으면 학생들은 비싸고 좋은 상품보다도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상품에 손이 열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대화해 주면 마음을 쉽게 열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복음을 꾸준히 전하게 됩니다.

#### 5. 학교 담장 공사 완료

저희가 림빠 마을 안에 새희망 학교를 설립한지 7년이 지나서야 담장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필리핀은 땅을 구입하면 먼저 하는 일이 담장을 쌓는 일인데 늘 학교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이해야 담장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초에는 학교 옆의 이웃이 우리 땅이 자기네 쪽으로 넘어 왔다고 역지를 부리는 바람에 경찰을 만나야 하였고,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동사무소에서 서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데 여기 필리핀은 마을마다 동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바랑가이)에서 민사와 서류를 담당합니다. 동네 주민과 다툼이 생겼을 때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서 45일 안에 3번의 모임을 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경찰서로 가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땅 측량을 하였고 그때부터 이제까지 중요한 것은 항상 서류와 사진을 잘 보관해왔습니다. 이번 동사무소 모임과 경찰서 모임에서 여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우리가 맞다고 모두들 말하였지만 이웃 여인의 역시 주장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땅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두었기에 이웃 여인의 역시 주장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인은 잠보앙가에서 유명한 법률 회사의 변호사인데 일반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늘 아무 때나 무료로 도움을 받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까지 어려움 없이 잘 사역해오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지에서 늘 안전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를 운영할 때 필요한 재정이 늘 공급되도록
3. 예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도록
4. 필리핀에서 12년을 공부한 현탁이가 한국 대학교에 특별전형으로 알아보려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하도록

오정운 공운자 선교사 드림  
ohgongtak@hanmail.net

## “일본 선교 어찌했는지 아세요?”

### 일본내 한인선교사단체 통합 주역 조남수 목사

일본 내 한인선교사 단체인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한선협)와 재일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ACC)가 지난해 말 '재일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한기연)로 통합됐다. 견해차이 때문에 쪼개져 12년 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조직이 다시 뭉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통합의 주역 중 한 명인 조남수(66) 초대그리스도교회 목사를 27일 일본 가나가와역 가와사키시 교회에서 만났다. [미선라이프]



한기연 공동회장인 그는 “두 단체가 ‘이제는 합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란 인식 아래 2년간 협의한 끝에 통합이 성사됐다”며 “그동안 단체가 달라 어려웠던 선교사

간 교제와 정보교환이 가능해지고 선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행사를 따로 열어왔으나 지난 1월 신년 선교대회는 한기연이란 이름으로 함께 열었다. 분열된 모습이 일소돼 일본교회를 대할 때는 한층 똘똘해졌다.

조목사는 “분리됐던 선교단체가 다시 통합된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다른 나라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한선협 회장으로 통합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제국(61) 시미즈성서교회 목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 어려움과 진통이 적지 않았기에 결실에 따른 기쁨도 크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한기연의 당면 과제로 선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선교사 정리를 꼽았다. 일본 기독교회의 데이터북을 보면 서양 선교사 관련 데이터는 상세한 반면, 한인 선교사 데이터는 매우 부실해 이를 업데이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일본 내 한인 대상 선교에 관한 기록은 정리돼 있지만, 일본 현지인을 전도하려는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묶여져 있지 않다.

조목사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문서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목사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 순탄하게 목회를 해오다 1986년 우연한 일로 일본과 인연을 맺은 뒤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고 일본 선교로 방향을 틀었다. 그의 30년 선교 역사를 보면 일본선교전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가 가와사키에서 개척한 초대그리스도교회는 현재 교인이 300명 이상이며 이중 3분의 2가 현지인, 나머지가 중국인과 한인이다. 후미 목회자도 일본의 제자를 세울 예정이다. 처음부터 일본인 전도에 매진한 결과다.

개척 초기부터 철저한 토착화를 위해 한국어로 된 서류를 만들지 않았고 구어체로 설교하려고 원고를 처음부터 일본어로 썼다. 이 지역 전도 대상은 대다수가 육체노동자였는데 이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부활절과 성탄절 등에 자주 파티를 열었다. 조목사는 “양쪽 입을 일이 별로 없는 노동자들이 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초대해 평생 잊지 못할 파티를 열어주니 ‘교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사람은 관계 맺기가 어렵지만 한번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안 깨뜨리려 한다”며 “일본선교가 힘든 건 사실이나 여기서도 똑같이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교회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인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채 목사

###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32)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 기독교교육을 위한 비평적 사회학 이야기 (16) (Critical Sociological Involvement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사카이트리니티칼리지 교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깨어지고 불의하고 불건전한 부분들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Mammonism)”와 “부정부패(Corruption)”, “인종차별(Racism/Racial Discrimination)”, “문화간 차별(Cultural discrimination)”, 그리고 “남녀차별 혹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Sexism)”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지 지난 이야기부터는 “동성애자 차별(Discrimination by 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지난 번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동성애자들, 즉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역적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우리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 동성애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동성애자는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거나, 이러한 입장이 동성애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 행위는 분명한 죄악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큰 장애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기에 더욱 동성애자들의 인생이 아픔이고 시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지위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함께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체들과 함께 성숙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되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 기독교 교육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사역적 자세는 그들을 정

가 없는 듯 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싫은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과 분위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인해 쉽게 바뀌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몇 마디의 말과 논리로 달라지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설사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동감을 표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의 실천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지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서는 동의해도 실천하는 것은 솔직히 꺼려지게 마련인 것이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사실 저만해도 실제로 우리 교회에 바로 내 옆에서 동성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상이 안가고, 실제로 제가

## 동성애자 역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체 그들의 문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측면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육이 비평 사회학적 관여를 위해 견지해야 할, 동성애자들을 향한 합당한 사역적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상당히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한다는 것이 동성애 자체를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동성애자들을 향한 바른 사역적 자세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성애자도 역시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지체들로 받아 안아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동성애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당사자들인 동성애자들에게는 그들의 성적지향이 이 인생의 큰 시련이요 아픔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자괴감과 두려움, 그리고 현격하게 낮은 자존감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죄하는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성숙해가야 하는 자들로 받아들이야 할 것이며, 그렇기에 실제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현재 우리 한인 교회들은 많은 경우 극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논의 자체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 및 동성애자들에 대해 극명한 반대와 혐오를 표현하고, 더 이상의 고려나 고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저 동성애는 악한 것이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도록 교육하고, 더 이상의 관심과 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교회 내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동성애와 관련된 이슈 자체가 자신들과는 먼 세계의 이야기로 여기고 별반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 듯하면서도, 일단 이야기가 나오면 동성애 및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극명한 반대와 혐오 및 무시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교단들에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논리적인 이야기도 사실 의미

어떠한 행동을 할 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힘든 것은 어쩌면 논리의 문제라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고, 내면에 있는 모르는 것, 다른 것에 대한 기이감과 두려움의 발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 스스로와 우리 교인들의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서, 사역자들은 점차 교인들이 그 생각을 바꾸고 그 실천을 일구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먼저 생각을 바꾸고 실천에 임해야 하겠지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섬기는 유스 그룹에 새로 온 친구가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면, 교인들과 함께 먼 세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해 본다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는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혐오하는 감정으로, 단죄하는 성정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보고 대하는 것을 탈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성숙해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 월 율법의 본질(롬7:9-12)찬422장

하나님이 주신 법이 모두 선한 이유는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본질을 3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 의롭습니다. 예수님도 마23:23에서 먼저 의를 언급함은 의가 모든 본의 기초인 것을 보입니다. 둘째,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처럼 율법을 행할 때 거룩하

게 됩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만큼 자랑하는 것이며 그가 주신 언약의 목적이입니다. 셋째, 선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창조를 나타내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선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는 자는 그 선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3가지 본질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 화 율법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롬7:13-15)찬189장

구원을 위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도가 발견한 진리를 생각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12). 성령이 하시는 일차적인 사역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의 기준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6장)와 베드로(눅5장)의 꼬꾸라지는 체험은 바로 성령이 율법을 나타내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회

개와 참 믿음을 갖게 합니다(13-14). 율법을 성령이 사용하실 때 죄인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고 소스라치게 회개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율법이 기준 제시하고 고소하는 역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믿어 율법의 본질인 의, 거룩과 선에 이르게 하십니다.

## 수 바울의 영적갈등(롬7:16-20)찬190장

사도바울의 영적갈등은 모든 신자의 경험입니다. 바울은 그 갈등 속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첫째, 그는 육의 요구를 보았습니다(16-17). 거듭난 신자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인 육의 강한 요구 곧,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둘째, 또 그는 영의 요구를 보았습니다. 육과 맞서 더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새 영의 욕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새겨

진 새생명과 새법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셋째, 죄를 짓게 하는 육의 부패성을 보았습니다. 육 혹은 육신으로 표현된 이 부패성이 교묘한 유혹으로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눈뜨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넘기워진 사실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갈2:20). 그 승리를 누십시오.

## 목 죄에서 해방되려면(롬7:21-23)찬213장

바울은 더 실제적인 일을 말하며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죄란 부패성이 지배함을 가리킵니다(21). 무질서, 어둠, 혼란, 공허 같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온갖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방될 수가 없기에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는 삶 또

한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려는 욕구와 죄의 법을 이기게 하는 더 강한 법이 임합니다. 내 마음의 법을 주장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로 나가게 합니다(23). 셋째, 영적전쟁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23). 하나님의 법을 좇아하는 내 속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 금 죄에서 벗어나려면(롬7:23-25)찬187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건은 일상생활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개별적인 체험은 우리의 것이기에 죄를 이기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입니다. 죄와의 갈등은 우리의 온갖 노력이 실패하고 또 다시 죄의 종이 됨을 발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실상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 예수님이 마련하신 공로만이 자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25).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죄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고 의지한 십자가 복음입니다(고전2:2). 셋째, 믿음으로 내 것을 삼는 것이 관건입니다(25).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함과 함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깁니다.

## 토 생명의 성령의 법(롬8:1-4)찬177장

마침내 바울은 이런 갈등에서 자유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첫째, 죄의 법을 따르면 영적 사망 곧 일시적인 단절상태에 떨어집니다. 이 죄의 법을 짓게 하는 우리 속의 부패성인 육을 가리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것을 처리하셨음이 복음입니다(갈3:2 롬6:3). 둘째,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승리합니다(1-4). 육을 이기게 하려고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

은 죄로부터의 보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혜사로서 일하시는 성령은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썼다고 하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2)2643-8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철야인양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 오전 5:00 새벽찬양예배: 오후 6:30 Tel: (02)218-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16-3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용두동 22-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동구 용두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신갈1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로 172, 291(갈매동)	<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8:0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www.eschin.org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용인시 용인읍 50-1 www.anamjil.or.kr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01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철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 ‘신앙뿌리를 찾는 북한 순례의 길’ 5월25일-6월1일 OneGreenKoreaMovement

## “나무심기로 남북통일의 오솔길 만듭니다”

“조국을 푸르게”를 외치며 북한에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OGKM(One Green Korea Movement, www.onegreenkorea.org, 대표 김호진 장로)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신앙뿌리를 찾는 북한 순례의 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OGKM은 이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순례의 길 프로젝트는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 교회의 뿌리인 소래교회를 비롯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원산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하고 평양대부흥운동의 현장 평양 장대현교회도 방문한다. 일정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지인 양각도도 포함돼 있다.

장대현교회 방문은 평양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로 더 의미가 깊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특히 순례 기간 중 주일인 28일에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순례단은 봉수교회 성가대와 함께 찬양할 예정에 있는데, 외국 방문객이 북한교인들과 연합성가대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또 질골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



기자회견서 김호진 장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호 교수, 김호진 대표, 박성길 장로, 이춘호 목사.

경단체다.

지금까지 북한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씨앗 6톤을 전달했다. OGKM은 이미 한국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대북지원지업자로 지정됐으며(2015년), 북한 국토환경보호청으로부터 단독위임을 받아(2013년)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OGKM은 이돈구 전 산림청장, 이시영 전 유엔대사, 김영길 전 한동대 총장, 통일한국 대표 오대원 목사,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 등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OGKM 대표 김호진 장로는 2002년부터 Love for All Nations이라는 비영리 민간선교단체 대표로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탄자니아 등지에서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다.

그러나 2006년 북한에 제1할렐루야 농장 30정부를 계약하고 블루베리 레스베리 블랙베리를 심는 것으로 북한사역을 시작해 지역을

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땀경사지에 농토조성 등으로 80%가 민통선이 됐다. 그런 북한에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 환영을 받았다”고 김호진 장로는 말했다.

김 장로는 “한반도 70년 방황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외교적으로

일의 주역은 해외동포들이다. 자주 가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알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비방으로 내부적으로만 해왔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나무를 심는 동안 주민들



2014년5월 나선 식목 마치고서 기념촬영 했다.

## “조국을 푸르게” 북한에 나무심기운동...환경 회복은 성경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풀 수 없는 통일문제 교회가 담당하길”

돼 있다.

순례단은 또한 OGKM이 북한 내에 세운 양묘장(북강원도 세포 등판)을 방문하게 된다. 이번엔 방문하는 자리마다(6곳) 양묘장 겸 예배처소를 세울 계획도 갖고 있다.

이번 5월 방문은 가을 순례단 행사를 앞둔 선발대 성격으로 10여

명이 참가하며 가을에는 50명 내외로 예정돼 있다. 또 가을 순례단이 잘 이뤄지면 앞으로 정기적인 순례단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OGKM은 2013년 1월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북한에 나무를 심어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통일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환

확장하며 베리류를 심었고, 이순신 장군 승전대 보수의 일도 했다.

나무심기는 2013년,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시작한 것이며 앞으로 목표는 65억 그루를 심는 것이다.

“북한은 자연이 잘 보존돼 있지

과 교제할 기회가 생깁니다. 직접 전도를 할 수는 없지만 자주 접촉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덕목인 사랑과 인내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호 교수와 김호진 대표, 박성길 장로, 이춘호 목사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연락처: (201)657-0266 김호진 대표, (646)671-1234 이춘호 사무총장

(유원정 기자)

## 익투스남성합창단 미주지역 순회공연

4월30일-5월7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익투스남성합창단(단장 조중현/지휘 류현열/반주 이수진) 미주지역 순회공연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열린다.

지난 30일 시애틀연합장로교회 공연을 시작으로 5월 6일(토) 세계가가페션 교교회(담임 김요한목사, 오후 4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목사, 오후 7시), 7일(주) 미주양곡교회(담임 지용덕목사, 오전 10시)에서 공연한다.

익투스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뜻을 담고 있는 물고기 모양의 헬라어 첫 글자를 딴 것으로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본 합창단은 이 이름에 걸맞도록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100여명으로 구성된 익투스의 단원들은 그 연령도 다양하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성들의 화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귀땀한다.

올해로 창단 23년을 기록하고 있는 본 합창단은 지금까지 연주 횟수가 1000회를 훌쩍 넘겼으며 9장의 음반도 남겼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수도권 조찬기도회에서 예배 찬양을 맡고 있



### 전문적 찬양에 대한 갈망과 그리스도 향한 열정으로

으며 국가조찬기도회·국회조찬기도회, 교회순회찬양, 선교음악회 외에도 격년제로 정기연주회와 해외연주를 번갈아 진행해오던 가운데 올해 미주 순회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

한편 13년째 본 합창단 지휘를 맡아온 류현열 교수는 지난해 공연에서 푸치니의 'Gloria'를 선곡, 수준 높은 합창단의 음악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단장으로 선출된 조중현 장로는 “합창단원은 교회의 집사, 장로들로 연령층은 20대에서 80대로 다양해 부자가 함께 단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직업도 다양해 의사·교수·기자 등 전문직에서 자영업까지 다방면에서 일하고 있으나 모두가 전문적인 찬양에 대한 갈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모인 합창단”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순회공연을 통해 미주지역 많은 성도

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자 기자)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 주최한 히브루타 세미나에서 강사 박승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미주목성연 주최 히브루타 세미나 강사에 박승호 목사

미주목회자성경연구원(대표 박승호 목사)가 주최한 히브루타 세미나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발제 및 토의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토의 후에 박승호 목사가 정리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전 9시  
장소: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 졸업논문 디펜스(D.Ics Dissertation Defense)

일시: 2017년 5월 10일(수)-11일(목) 오전 9시 - 오후 4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147호

###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7년 5월 12일(금) 12:00-1:30 pm(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웨스트 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